

# 3

March 2023  
Vol.375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Studio Bob

©Kumho Cultural Foundation

©Yan Zhang

©Young Chul Kim

**COLUMN**

마음 셋, 꽃이 되다

**COVER STORY**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라즈로 만나는  
고품격 클래식계의 향연

**끝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유유당 산성요

유니버설발레단  
UNIVERSAL BALLET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 지젤

Giselle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관람가

2023. 4.7 금 19:30, 4.8 토 15:00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



부산문화회관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UNIVERSAL BALLET

티켓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4만원, A석 2만원

Dancer | Mara Barros  
© Universal Ballet Photo by Youngin Kim



# Bremer Philharmoniker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지휘 마르코 레토냐 (Marko Letonja) 협연 바이올린 임지영 / 첼로 문태국

브람스  
Johannes Brahms

대학축전서곡 Akademische Fest-Ouverture Op.80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Double Concerto a minor Op.102  
교향곡 4번 Symphony No.4 e minor Op.98

2023. 4. 22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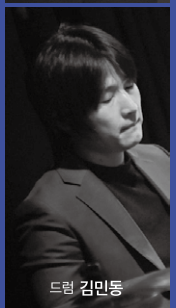
# 2030 EXPO BUSAN

※ — 제 88회 명품콘서트 — ※

# Asia & Saha

Japan

Korea - Saha



2023.3.23 Thu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 을숙도문화회관 문의 | 051.220.5811 ~ 14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 88회 명품콘서트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자 전석 초대로 진행합니다.



# 2023년 부산도슨트과정 4기 회원모집

비영리단체 부산도슨트협회(since2019) B.D.A 도슨트 교육을 안내합니다.

협회등록번호: 602-82-70\*\*\*

- **장소** : 부산도슨트협회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2층 세미나실
- **회비** : 50만원(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788953 부산도슨트협회
- **문의** : 회장 박덕남 010-6207-0767
-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4기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4/17(월)	개강식(30분) 클라우드 모네, 현대회화로 향하는 빛	박덕남 한이준	블루아트페어위원장 전문 도슨트
2	4/24(월)	동시대 미술, 이렇게 보자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학 박사, 티엘갤러리 관장, 동명대학교 겸임교수
3	5/1(월)	I 어디까지가 미술인가? 예술과 미술	김미애	한국교원대학교외래교수
4	5/15(월)	예술로서의 사진발전의 역사와 현대사진의 이해	황현일	다큐멘터리 사진가, 기장군보 편집장
5	5/22(월)	도슨트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도 효과적인 현대미술 도슨팅 전시기획 의도와 맥락의 이해	김채빈	경남도립미술관 도슨트
6	5/29(월)	인상 깊은 미술관 전시 관람 방법	정연은	미술칼럼니스트,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진행
7	6/5(월)	I 융합적 지성, 괴테를 만나다	안장혁	동의대 교수
8	6/12(월)	도슨트와 아카이브의 역할로 보는 도전과 열정	추준호	유튜브주춘호tv운영, 부산일보경영지원부부국장, 부산미협 심사위원
9	6/19(월)	II 독일미술 산책	안장혁	동의대 교수
10	6/26(월)	II 현대미술 한 눈에 바라보기	김미애	한국교원대학교외래교수
11	7/3(월)	I 색채미학-인문학적 정의를 통한 사유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이사장
12	7/10(월)	II 색채해석-명화 감상의 색채해석학적 방법론 종강식(30분)	배선주 박덕남	한솔미술공예협회이사장 블루아트페어위원장

※ 월요일 저녁 6시30분~ 8시30분 2시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 (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하반기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 대상

-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 대관 내용

- ▷ 대관기간 :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6개월)
-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홈페이지 대관공지  
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년 3월 22일(수) 09:00~4월 4일(화) 18:00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대관신청  
※ 전화 및 구두, 이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 결과 회신 : 2023년 4월 중(예정)

## 대관 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대관료의 80%) : 대관 예정일 30일 전까지(대극장의 경우, 공연일 60일 전)  
※ 대관승인일이 대관예정일까지 30일 이내의 경우 계약체결 즉시 전액 납부 또는 회관 지정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051-607-6051
-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051-630-5251(공연장),  
051-630-5212(전시실)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 CONTENTS

## 3

월간문화예술정보지



- 08 **Column**  
마음 셋, 꽃이 되다
  
- 10 **Cover Story**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로 만나는  
고품격 클래식의 향연
  
-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⑳**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2
  
- 20 **세계오페라축제 ⑬**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리고 링컨 센터
  
- 24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차와 도자기,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이야기들  
유유당 산성요
  
- 26 **서울통신원**  
30년 만에 한국 오는 파리오페라발레

- 29 **Preview**
  
- 40 **Program Guide**
  
- 50 **BSCC News**
  
- 54 **New Book**

*예술의 조대* March 2023 Vol.375

2023년 3월호 통권 37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3년 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SUN	MON	TUE	W
<p><b>예매권</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김대준 박진우 듀오 리사  <b>첼</b> 전석 2만원/트레첼토</p>
<p><b>5</b></p> <p>이민아의 춤 '엽(葉)' 18:00  <b>중</b> 전석 1만원/이민아 무용단(010-5051-0242)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독창회 'DIVA, DIVO!' 17:00  <b>첼</b> 손혜은(010-4461-1044)</p>	<p><b>6</b></p>	<p><b>7</b></p> <p>간판때부산 창립기념음악회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의 밤-상생(相生)' 19:30  <b>중</b> 3만원2만원/이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p>	<p><b>8</b></p>
<p><b>12</b></p> <p>뮤지컬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_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11:00, 14:00, 16:30  <b>대</b> 6만6천원-4만4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A Star is Born' 17:00  <b>중</b> 전석 1만원/BMPO(070-7727-0188)</p>	<p><b>13</b></p>	<p><b>14</b></p>	<p><b>15</b></p>
<p><b>19</b></p> <p>2023년 제4회 BIDF코리아댄스그랑프리 10:00  <b>대</b>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 14: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0</b></p>	<p><b>21</b></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야' 19:30  <b>대</b>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더뉴 앙상을 제6회 정기연주회 'The New&amp;Moran' 19:30  <b>중</b> 전석 2만원/UKO(988-3087)</p>	<p><b>22</b></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19:30'  <b>대</b>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오페라단 나눔 신춘음악회 '양인모&amp;김다솔 듀오'  <b>중</b> 전석 2만원/오페라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6</b></p> <p>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00  <b>대</b> 6만원-4만원/(주)썬크브릿지(1533-7446)                      윤승환 타악독주회 '환입(還入)' 16:00  <b>첼</b> 무료/윤승환(010-2595-67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 14:00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7</b></p>	<p><b>28</b></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다시봄' 19:30  <b>대</b>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9</b></p> <p>(재)부산문화회관 월드오페라 '양인모&amp;김다솔 듀오'  <b>대</b> 6만원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b>사</b>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MON	TUE	THU	FRI	SAT
1  이틀 15:00 (031-213-3314)	2	3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19:30 ▶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4  2023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 초대/(사)송인문화재단(010-4183-2293)  La Prima 창단연주회 '봄날의 위로' 15:00 ▶ 전석 1만원/라 프라마(010-2370-9461)	
8	9  부산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 '영원한 친구, 노래' 19:30 ▶ 초대/부산은파합창단(010-7325-6773)	10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19:30 ▶ 6만원-4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뮤지컬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_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11:00, 14:00, 16:30 ▶ 6만6천원-4만4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봄의 속삭임' 17:00 ▶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冬花(동·화) 앙상블 제1회 창단연주회 19:30 ▶ 冬花(동·화) 앙상블(010-9992-0730)	
5	1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제2회 브리즈온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브리즈온(010-8025-997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2023년 제4회 BIDF코리아댄스그랑프리 10:00 ▶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  제4회 루체살레 정기연주회 19:30 ▶ 전석 2만원/루체살레(010-5015-921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 14: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문화회관(607-6000)  회 '봄이로구나' 19:30 ▶ 나눔(010-9298-7949)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 11:00(단체관람) 문화회관(607-6000)	2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19:30 ▶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사랑의 노래' 19:30 ▶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00 ▶ 6만원-4만원/(주)씽크브릿지(1533-7446)  제15회 오퍼스피스트 정기연주회 16:00 ▶ 오퍼스피스트(010-8338-737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 14: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리사이틀' 19:30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 11:00(단체관람) 문화회관(607-6000)	30  UKO오케스트라 제52회 사랑나눔음악회 19:30 ▶ UKO오케스트라(988-3087)  부산시립극단 '집집: 하우스 소나타' 19:3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4회 루체살레 정기연주회 '12 프리마돈나 앙상블' 19:00 ▶ 전석 2만원/루체살레(010-5015-9215)  가족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1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19:30 ▶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집집: 하우스 소나타' 19:3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11:00(단체관람)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b>예매</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전시실</b></p> <p>정재은 개인전 3월 8일(수)-3월 17일(금) 전시실1 정재은 010-7224-2498</p> <p>부산에서 만난 서울일상 3월 18일(토)-3월 19일(일) 전시실1 박현우 010-5188-5135</p> <p>윤경주 개인전 '바람이 되어 2' 3월 21일(화)-3월 26일(일) 전시실1 윤경주 010-4010-2283</p>		<p>경향공쿠르 09:00 소 경향아트(462-707)</p>
<p><b>5</b></p> <p>시크릿췌췌 별의 여신 뮤지컬 시즌3:마지막 콘서트 11:00, 14:00 대 전석 6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b>6</b></p>	<p><b>7</b></p>	<p><b>8</b></p>
<p><b>12</b></p> <p>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왕스-스노우페스티벌'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5천원/(주)더화랑이엔티(1800-6567)</p>	<p><b>13</b></p>	<p><b>14</b></p>	<p><b>15</b></p>
<p><b>19</b></p> <p>뮤지컬 '메카드볼:지구를 지켜라!' 11:00, 14:00 대 전석 6만6천원/디피플컴퍼니(031-8013-1409)</p>	<p><b>20</b></p>	<p><b>21</b></p>	<p><b>22</b></p>
<p><b>26</b></p> <p>문화관 모이라 '119 옆 낙원빌딩(원제:나는 죽는다)' 15:00 소 전석 3만원/문화관 모이라(010-9701-0712)</p>	<p><b>27</b></p>	<p><b>28</b></p>	<p><b>29</b></p>

ED	THU	FRI	SAT
1	2	3	4
		제5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시상송 경연대회 13:30 ☎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988-2427)	시크릿췌췌 별의 여신 뮤지컬 시즌3:마지막 콘서트 11:00, 14:00, 16:30 ☎ 대 전석 6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8	9	10	11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왕스-스노우페스티벌' 11:00, 14:00, 16:30 ☎ 소 전석 5만5천원/(주)더화랑이엔티(1800-6567)
5	16	17	18
			뮤지컬 '메카드볼:지구를 지켜라!' 11:00, 14:00, 16:30 ☎ 대 전석 6만6천원/디피플컴퍼니(031-8013-1409)
2	23	24	25
	문화판 모이라 '119 옆 낙원빌딩(원제:나는 죽는다)' 19:30 ☎ 소 전석 3만원/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문화판 모이라 '119 옆 낙원빌딩(원제:나는 죽는다)' 19:30 ☎ 소 전석 3만원/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기념 응원콘서트 13:00 ☎ 대 엑스포시민참여연합(010-5705-8777) 문화판 모이라 '119 옆 낙원빌딩(원제:나는 죽는다)' 15:00 ☎ 소 전석 3만원/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9	30	3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마음 셋, \_\_\_\_\_ 꽃이 되다

동길산 시인·본지 편집위원장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는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문 수업이 있어서 한자를 배웠다. 문장을 해석해야 하는 한문은 어려웠지만 그림글자 같은 한자는 재미가 있었다. 눈에 쓱쓱 들어왔다. 일단 눈에 들어온 한자는 인간해선 까먹지도 않았다.

재미가 있으니 공부는 알아서 했다. 재미는 그렇다. 재미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재미가 있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 공부든 예술이든 뭐든 그렇다. 재미가 있으니 한자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나갔다. 신문이나 잡지에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옥편을 뒤적거렸고 나만의 한자 사전을 만들었다.

자전(字典). 나만의 한자 사전을 그렇게 명명했다.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까까머리 학생에게 그거 그렇게 멋져 보였다. 내 성을 붙여서 '동자전, 동자전' 그랬다. 사전적 의미의 자전은 구성 요소가 중층이지만 동자전은 그 정도는 물론 아니었다. 단순했다. 한자 쓰고 그 한자가 들어간 연관이 몇을 덧붙이는 수준이었다.

재미가 있으니 길 가면서도 자전을 꺼냈다. 거기에 방금 본 한자를 썼다. 학교에서 쓴 한자도 많았지만 길에서 쓴 한자도 많았다. 길 한자는 요즘으로 치면 생활한자였다. 학교에서 배운 한자가 초보적이고 학습용이라면 길 한자는 일상적이고 실용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한자가 가가거거 파릇하다면 길 한자는 산전수전 공중전이었다.

국어사전과 옥편은 길 한자의 길잡이였다. 길 한자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책가방에 포켓 국어사전과 옥편을 넣어 다니면서 모르는 한자가 나타나면 찾았다. 경찰서가 나타나면 국어사전에서 경찰서 한자를 찾은 후에 옥편에서 경 한자, 찰 한자, 서 한자를 찾았다. 그러곤 다시 국어사전에서 연관어를 찾았다. 경비, 기찰, 부서 등등. 기찰은 '남의 행동을 살핀다'는 국어사전 단어이면서 그 당시 부산 36번, 49번 버스 종점이었다.

때로는 이벤트를 벌였다. 재미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공부는 공부였다. 싫증이 날 만하면 이벤트를 벌여서 달아나려는 나를 붙잡았다. '가' 한자만 찾거나 끝말잇기를 했다. '조선'에서 '선'수로 이으며 이런 선도 알고 저런 선도 알았다. 같은 글자 셋으로 이뤄진 한자 찾기는 지금 생각해도 썩 괜찮은 이벤트였다. 차가 셋인 굉(轟)이 먼저인지 돌이 셋인 퇴(磊)가 먼저인지 기

역은 가물하지만 셋 한자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런 글자도 만나 싶었다. 신기했다.

돌무더기. 퇴(磊)의 뜻이 그랬다. 고3때 동기 몇이 의기투합해 펴낸 시집의 제목으로 써먹었다. 문예부장인 내가 기를 쓰고 우기니 그런가 보다, 따라주었다. 또래들은 모르지 싶은 한자를 안다는 우쭐거림이 제목으로 이어졌으리라. 마스터로 인쇄하고 도배 벽지 표지에 노끈으로 철한 어설픈 시집이지만 학생 문사가 됐다는 기분에 은근히 뿌듯했고 이런 한자도 안다는 기분에 은근히 우쭐거렸다.

셋 한자는 얼마나 될까. 꽤 많다.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 품(品), 정(鼎), 삼(森) 말고도 수두룩하다. 학교 다닐 때 찾아낸 게 열쯤 이었고 근래에 그 세 배쯤을 찾아내었다. 聶(소곤거릴 섭), 轟(숨털 취), 轟(나타날 효), 犇(달릴 분), 轟(말 몰려 달아날 표), 森(개 달리는 모양 표), 轟(발 갈피 퇴), 轟(많은 물줄기 천), 森(물 아득할 묘), 轟(기쁠 흥), 轟(웃을 색) 등이다. 말쑤 언(言)이 셋인 지결일 집, 아들 자(子)가 셋인 삼갈 전, 눈 목(目)이 셋인 눈매 예뻐 막도 있다. 내가 쓰는 노트북 '한자로 바꾸기'엔 나오지 않는다.

轟. 근래 찾아낸 셋 한자다. 꽃술 쇠, 또는 꽃술 예로 읽는다. 꽃이 더부룩한 모양이란 뜻도 있고 열매란 뜻도 있다. 꽃이 봉오리 벌리면 아지랑이처럼 하늘하늘 피어나는 꽃술, 꽃술. 암술과 수술이 은근슬쩍 닿기도 하며 꽃은 더부룩해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이 한자를 처음 생각해 낸 누군가는 꽃이 열매로 나아가는 지난한 여정을 마음 셋이 같이 있는 거로 봤다. 피는 꽃을 골똘히 보노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다.

마음 셋. 당신과 내가 마음을 더하는 거만으로도 한세상을 얻는데 거기에 마음 하나가 더했으니 우주인들 언지 못할까. 이제 봄. 꽃이 봉오리 벌리고 꽃술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봄이다. 당신과 나, 거기에다 먼발치 서성은 마음 하나가 더한다면 무슨 꽃인들 피우지 못할까. 무슨 꽃인들 되지 못할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로  
만나는

고품격  
클래식의  
향연



W  
C



W  
S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계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펼쳐진다. 특히 세계가 인정한 차세대 연주자들의 완벽한 테크닉과 화려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6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브루스 리우(3월 10일)를 시작으로 제12회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마이올리나스트 양인모와 2005년 나고야 국제 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김다솔(3월 29일)에 이어 한국 기타음악의 거목 장승호와 최고 권위의 빈 기타 국제콩쿠르 2021년 2022년 우승자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클로우(4월 27일), 그리고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선 우예권(10월 6일)이 관객과 만난다.



©Kumho Cultural Foundation



©Studio Bob



©Young Chul Kim

6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 일시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지난 2021년, 팬데믹의 여파로 6년 만에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가 '2023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브루스 리우는 콩쿠르를 통해 증명한 뛰어난 테크닉과 나이를 넘어서 성숙함, 그리고 기존의 해석을 뒤엎는 참신한 연주로 세계 음악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에서 갖는 첫 독주회로, 그동안 브루스 리우의 연주를 기다렸던 국내 음악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로 1997년생인 브루스 리우는 캐나다 몬트리올 음악원에서 리처드 레이먼드를 사사했으며, 몬트리올 대학교에서는 아시아인으로 최초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당 타이 손을 사사했다. 센다이 국제 콩쿠르,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텔아비브 국제 콩쿠르, 비제유 국제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연주에서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피아노라는 악기에서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연주가', '쇼팽 음악의 다양한 감정과 다채로운 사운드 표현에 능한 연주가', '기존 쇼팽 음악의 틀을 깬 개성있는 연주가'라는 평을 들었다.

브루스 리우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후 가장 주목받는 연주자로 급부상하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연주일정이 꽉 차있을 정도로 세계 음악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2-2023 시즌 기간동안에는 뉴욕 카네기홀을 비롯해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산토리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어,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국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니, 로테르담 필하모니 등과 협연 무대를 가진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에는 콩쿠르 우승 후 한 달 만에 첫 내한하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쇼팽 콩쿠르 스페셜'에서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날 무대에서 브루스 리우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콩쿠르 당시의 연주보다 더 발전된 해석으로 연주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콩쿠르 당시의 우승 연주실황을 담은 그의 첫 음반은 그라모폰으로부터 '최근 가장 기품있는 쇼팽 연주 중 하나'라는 호평과 함께 비평가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으며, 그 해 최고 클래식 음반에도 이름을 올렸다.

브루스 리우는 부모가 중국인으로, 파리에서 태어나 몬트리올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여타의 연주자들과는 차별화된 성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유럽식 세련미, 중국의 오랜 전통, 북미의 역동성과 개방성 등이 녹아 있다는 평



©Yan Zhang



세계가 주목하는  
두 연주자

##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 일시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을 들곤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런 그의 성향이 반영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후기 바로크시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라모(Jean-Philippe Rameau)의 '부드러운 탄식', '외눈박이 거인', '야만인들', '암탕', '가보트와 6개의 두블'을 비롯해 쇼팽의 '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 그대 손을 내게 주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2, 소나타 제2번 작품 35 '장송 행진곡', '새로운 3개의 연습곡', 그리고 리스트의 '돈 주앙의 회상 S.418'이 연주된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두 번째 무대에서는 절친한 동료이자 오랜 시간 음악적 소통을 이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가 9년 만에 배출한 우승자이자 2022년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양인모는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내면의 진솔함을 연주로 표출해내는 매력적인 능력'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이후 한국에서의 첫 리사이틀로, 음악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 우승 후 카네기홀 와일 홀 데뷔 무대를 가진 양인모는 보스턴 심포니홀,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말보로 뮤직 페스티벌 등 미국 주요 무대에 진출하여 음악성을 인정받았으며, 파비오 루이지, 네메 예르비, 정명훈, 오스모 벤스케, 제임스 개피건, 마린 알슌 등 세계적인 명성의 지휘자들과 함께 프랑스 국립 교향악단,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취리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치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했다. 지난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세 차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양인모는 지난 2021년,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발매한 음반 '현의 유전학'이 많은 음악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를 기념한 공연 역시 매진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바이올린 거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뉴잉글랜드 음



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양인모는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양인모와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이미 베를린에서 가진 양인모와의 듀오 리사이틀에서 특유의 섬세함과 빼어난 표현력으로 유럽 관객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 지난해 제16회 빈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한 김다솔은 일본 나고야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미국 YCA 국제 오디션,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 독일 키싱엔 클라비어올림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스위스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슈만 국제 음악 콩쿠르 등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만 18세 나이로 지휘자 미하엘 잔덜링과 함께 독일 전역 투어 연주를 가짐으로써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김다솔은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를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꾸준히 무대에 올랐으며, 2013년에는 금호아트홀의 첫 번째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다솔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와 한국 등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2021년부터는 스위스 에르넨 음악제의 실내악 프로그램 예술감독, 트리오 마빈 멤버로 활동하는 등 현재 독일, 스위스, 한국을 중심으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에도 클래식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가져온 양인모와 김다솔은 이번 무대에서 안톤 베버른, 베아트 푸러, 요하네스 브람스 그리고 루트비히 판 베토벤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특히 평소 '동시대 음악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것이 젊은 아티스트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언급했던 양인모의 생각을 이번 무대에 그대로 담아낸다.

기타리스트  
장승호×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 빈 Guitar 국제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낭만과 열정, 섬세한 기타 선율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최고 권위의 기타 국제 콩쿠르인 빈 기타 국제 콩쿠르의 2021년, 2022년 우승자인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가 부산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 기타음악의 거목 장승호가 함께 한다. 장승호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에서 영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음악가 최초로 스페인 국왕문화훈장(condecoracion isabell la catolica)을 수여받았다. 지난 1993년, 스페인 왕립음악원 재학 중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Rene Bartoli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빈 기타 국제콩쿠르

### 일시

4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세고비아, 산사노 콩쿠르 등 7개의 세계적인 콩쿠르에 입상하며 큰 주목을 받은 장승호는 그동안 세계무대에서 혁신적인 연주를 이어오며 ‘평생 기억될 만한 마법같은 연주’, ‘기타연주에 앞서 진정한 음악가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장승호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청중과 소통하고 있는 세계적인 젊은 기타리스트들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는 그들의 열정과 낭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월간 ‘객석’의 편집장을 역임한 콘서트 가이드 국지연이 깊이있는 해설로 관객들을 클래식기타의 세계로 안내한다.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일시

10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023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은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앞서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 수상으로 우리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연주실력은 물론이며, 한결같은 겸손한 태도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사로잡은 선우예권은 서울예고를 거쳐 미국 커티스 음악원, 줄리아드 음대, 뉴욕 매네스 음대에서 수학했고 현재 독일 하노버 음대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다.



#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2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십여 년 전 프랑스에 잠시 머물 때 한 중국인과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현지인이 의아해하며, 중국인과 한국인은 한자를 쓰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당황하며, 우리는 한자를 알긴 하지만 말은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한 질문을 한 프랑스인의 무지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알파벳을 쓴다고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동양인들은 언어가 거의 유사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는 한자를 조금씩 다른 형태라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세 나라 간의 문화적 신경전이 있었고, 원조가 누구인 지에 대한 의미 없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 각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가지는 특성은 다르다. 서양인의 눈으로는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 구분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몇천년 전 고대 국가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없었고 이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도 않았다. 풍부한 자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 문명이 싹트고, 현재 일본이 있는 섬이나 동북아 지역의 대부

분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거나 살더라도 문명 이전의 단계였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고대의 문화가 점차 동북아 지역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말을 듣다보면 그저 코웃음이 나올 뿐이다.

다소 단순한 설명이긴 했지만, 동북아시아의 문화는 황하나 요동 반도 등 문명이 발달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 중 황하 문명의 갑골문자는 지금의 한자로 발전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동북아시아의 언어에는 한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옛이야기, 즉 신화 역시 비슷하게 동북아시아에 퍼져나갔다.

## 농사와 예술의 신 신농씨

문명의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일 것이다. 사람들이 부락 단위로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체계적으로 짓고, 이를 분배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시대의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농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훌륭한 신적 존재로 신농씨가 있었다고 한다. 신농씨는 염제(炎帝)라고도 불리는데, 인간에게 이로운 작물을 알려주고 농사기구를 사용하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등을 다양하게 알려줬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식량을 재배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경제적인 방식도 알려주었다.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백의 식물을 직접 먹어보고 정리해서 이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농씨’라는 이름이 붙은 한약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고 가르쳐준 신농씨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1 중국산동 무량사 화상석 중 <신농씨>, 탁본



2 오희분5호묘 천정벽화 부분, 6세기 말-7세기 초, 중국 길림성 집안 위치



3 <황제(좌)와 염제(우)>, 2006년, 높이 106m, 황하 유역의 허난성 통명산기슭

신적 존재였다. 마치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훔쳐준 대가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농씨는 곳곳에서 하나의 고정된 형태라기 보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초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얼굴에 여러 개의 혹이 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중국 한 대의 화상석에서는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sup>[도판 1]</sup>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농사에 중요한 '소'의 머리를 한 신<sup>[도판 2]</sup>으로 그려진다. 또한 현대 중국에서는 2006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조각상으로 정치를 상징하는 '황제'와 경제를 상징하는 의미로 '염제', 즉 신농씨의 거대한 얼굴을 바위산에 새기기도 했다.<sup>[도판 3]</sup>

농사를 관장하는 신농씨는 우리 문화에서도 중요한 신으로 대우를 받아왔다. 조선시대에는 일 년에 한 번 왕이 주관하는 선농제를 지냈는데, 이때 소를 잡아 신농씨에게 제물로 바치고 문무백관과 함께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길 기원했다. 그 장소가 바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이며, 이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나눠 먹기 위해서 끓인 것이 설렁탕의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렇듯 농사가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던 우리 조상에게 신농씨는 중요한 신이었다.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한 신농씨인 만큼 성품도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후손인 치우가 자신의 땅을 치려고 하자, 순순히 내어주기도 했다. 치우는 머리가 구리이고 이마가 쇠이며 짐승의 몸을 가졌지만, 사람의 말을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그런데 치우는 신농씨의 땅을 차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황제와 전쟁을 벌였다. 치우는 자신의 도깨비 형제들과 용맹한 인간인 묘족이 참전하였고, 황제는 귀신과 맹수 그리고 다른 인간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치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래도 밀리던 황제군은 뇌신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

이렇듯 치열했던 전투로 비록 치우는 졌지만, 이후 무시무시한 도깨비의 형상으로 남아, 중국 고대 문명의 청동제기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의 붉은 악마로 부활하기도 했다.

## 신이 된 단군왕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들과 함께 인간들은 문명을 만들어나갔다. 그중 요동 반도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땅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天子)인 환웅의 아들 단군왕검이 다스렸다. 단군왕검에 대한 신화는 구전으로 전해져오다가 일연의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문자로 정리되었다. 두 기록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인간이 되고자 한 곰이 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어 결혼하였다는 대략적인 이야기는 비슷하다. 그리고 환웅이 내려온 곳은 신령한 나무인 신단수이며, 단군왕검은 조선을 건국하였다. 중간에 주나라의 기자에 의해 점령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단군왕검은 조선을 지키면서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을 다스렸다.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조선의 도읍이었던 아사달에서 신(神)이 되었다고 한다.

비록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단군왕검과, 우리에게 고조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의 존재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찾았다.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 유물과 고문서에 등장하는 기록 등을 통하여 단군왕검의 시대가 있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단군의 부모, 조선을 천년 넘게 지배했다는 점, 그리고 아사달의 신이 되었다는 것은 신화적 요소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고려 시기 글의 말미에 적힌 것처럼 '신'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삼국유사>가 적힌 시기에 단군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추앙의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이자 신으



4

4 <단군영정>, 1910년 지윤영 모사, 종이에 수묵, 채색,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로 여겨졌다. 민간 신앙에서도 단군도를 그리면서 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현재에는 두 점의 단군영정이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신라의 술거가 그린 단군의 모습을 구한 말 화가 지운영이 모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1949년에 공인받은 영정<sup>[도판 4]</sup>과 1978년에 그려진 영정<sup>[도판 5]</sup>이다. 나무 의자에 앉아 긴 수염을 가지고 둥근 모자를 쓴 모습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전자의 것은 나뭇잎을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것은 노란 빛의 옷을 입고 흰 천을 어깨에 두르고 있다. 두 영정 모두 실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기록이나 구전되어오는 내용을 종합하여 그려진 것이다.

이 중 나뭇잎을 두른 모습은 1909년 나철이 민족 고유의 종교로 대종교를 창시하면서 대표 이미지로 삼은 것이다. 이 그림은 신라의 화가 술거가 그린 원본을 입수하여 이를 지운영이 모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술거가 꿈에 단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수백 점의 단군왕검의 모습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충남 문화재로 지정된 이 영정은 부여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독특하게 흰옷 위로 어깨와 허리에 나뭇잎을 두르고 있는데, 이를 신단수에 내려온 하늘의 아들인 환웅의 대를 이은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사실적 고증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후자의 단군 영정이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된다.

### 역사이자 삶이 된 신화

이렇듯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이면서도 현재까지도 신적 존재로도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신화를 이해하고 그 속의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서사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녹아있는 신화를 찾아보는 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 않게 흥미롭다.



5

5 홍숙호, <단군 표준영정>, 표준영정 지정년도 1978년, 170×115cm, 종이에 채색, 서울 단군성전 소장.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리고 링컨 센터

*Metropolitan Opera  
and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과 프로덕션을 꼽으라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링컨 센터 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과 오페라단이라고 생각한다. 비영리 재단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는 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Yannick Nézet-Séguin)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Metropolitan Opera*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이전에 설립된 뮤직 아카데미(Academy of Music) 오페라 하우스의 대안으로 1883년에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맨하튼 39번가에 위치한, 현재는 ‘Old Met’로 알려진 브로드웨이의 새 건물에서 시작하여 1966년 지금의 위치인 링컨 센터(Lincoln Center)로 이전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명실상부 북미에서 가장 큰 클래식 음악 단체이다. 시즌이 시작되는 매년 9월 말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25편의 오페라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들 작품은 로테이션 되는 레퍼토리 일정으로 제공되며 매주 4개의 서로 다른 작품이 최대 7회까지 공연된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레퍼토리는 18세기 바로크부터 19세기 벨칸토,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미니멀리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오페라는 정교한 전통 장식부터 현대적인 개념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스타일까지 매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넘나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

1.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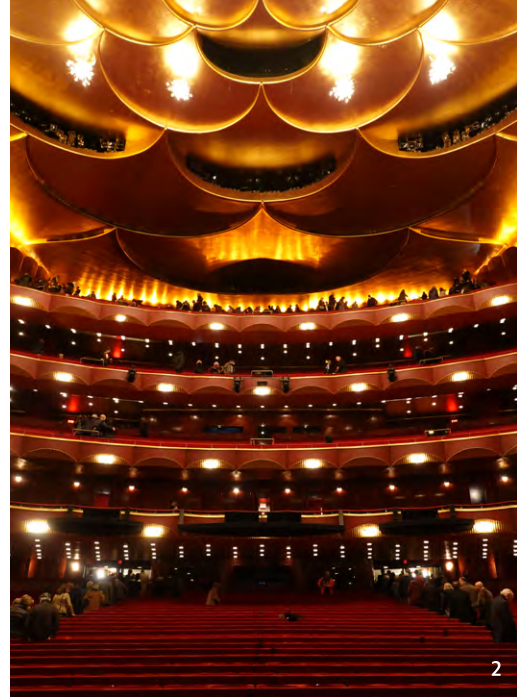
Lincoln Center  
Lincoln Center

페라 가수들이 매일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필자가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만났던 여러 오페라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1/12시즌 선보였던 리하르트 바그너의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이다. 당시 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가지고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4편을 각기 세차례 공연으로, 단 12번 무대에 올리는 것도 놀라웠다. 주요 출연진으로 Sir 브린 터펠, 요나스 카우프만 같은 당대 최고의 출연진이 무대에 올랐으며, ‘태양의 서커스’를 연출했던 로베르 르파쥬가 오페라 세트와 무대를 연출했다는 점도 신선했다. 이 작품은 이후에도 크게 회자되었는데, 2018/19시즌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되어 관객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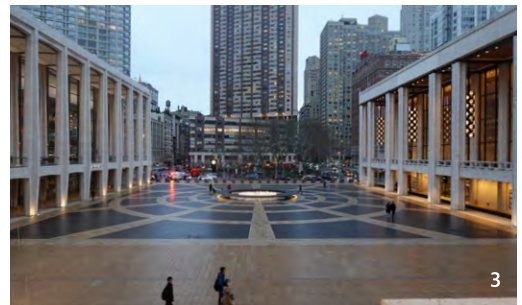
### 링컨 센터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뉴욕 62번가~64번가에 걸쳐져 위치해 있는 링컨 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간단히 Lincoln Center 라고도 함)의 부속 건물 중 하나이다. 링컨 센터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링컨 스퀘어(Lincoln Square) 인근에 있는 16.3 에이커(6.6헥타르), 약 2만평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30개의 실내 및 실외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 필하모닉,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시티 발레단, 링컨 센터 실내악 소사이어티, 줄리어드 음대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공연 예술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 III)가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컨소시엄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로버트 모세(Robert Moses)의 뉴욕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중 링컨 광장 리뉴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링컨 센터를 건설했다. 1956년 록펠러가 링컨 센터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당시 건설에 필요한 민간 자금 1억 8,45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링컨 센터 중앙의 메인 3개 건물 중 하나인 데이비드 게펜 홀(David Geffen Hall)은 1962년 오픈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필하모닉 홀로 불리다가 에버리 피셔홀(Avery Fisher Hall)로 바뀌었고, 최근 드림웍스의 창업자 데이비드 게펜홀이 거금을 기부하면서 게펜홀로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뉴욕 주립극장(New York State Theatre)이었던 데이비드 코크극장(David H. Koch Theatre)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는 1964년과 1966년에 각각 오픈했다.



2.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객석  
3.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바라본 링컨 센터  
4. 링컨 센터





5. 리노베이션을 마친 데이비드 게펜홀 무대 6. 데이비드 코크 극장 내부

링컨 센터의 이름이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링컨 스퀘어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링컨 스퀘어(Lincoln Square) 광장은 오래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지역의 지주 이름에서 왔다는 추측이 있어 왔지만, 뉴욕시 기록 보관소의 재산 기록에는 링컨이라는 성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리기 위해 링컨 스퀘어가 생겼으며,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링컨 센터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게펜홀 *David Geffen Hall & 데이비드 코크극장 *Daved H. Koch Theatre****

링컨 센터 내 데이비드 게펜 홀은 뉴욕 필하모닉이 상주해 있다. 오래 전 에버리 피셔홀 시절부터 공연장의 음향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펼쳤는데, 최근 5억 5천만불, 한화로 6천억원 이상 비용을 들여 리노베이션하

여 지난해 재개관했다. 좌석 수를 약 500석 가량 줄이고, 내장재 상당 부분을 바꿈으로써 잔향을 목표치까지 만들었으며, 그동안 고질적으로 대두되었던 음향문제가 대체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이 있다. 필자는 지난 달 뉴욕에 일정이 있어서 새로 개장한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팬데믹 때문에 3년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그 이전의 공연장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연주 내도록 멋진 사운드와 화사하게 바뀐 공연장 내부의 느낌은 꽤 인상적이었다.

현재 데이비드 코크 극장에는 뉴욕 시티발레단이 상주함으로써 링컨 센터는 가장 이상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페라, 관현악, 발레가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데이비드 게펜 홀, 그리고 데이비드 코크 극장으로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세계 어떤 도시에도 해당되지 않는 뉴욕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차와 도자기,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이야기들

## 유유당 산성요

박나무 자유기고가

19세기 청나라와 영국 간에 치열하게 벌어진 아편전쟁의 출발은 홍차였다. 청나라에서 만든 홍차와 도자기는 영국에 불티나게 팔리는데, 영국산 면직류 등은 중국에 잘 안 팔리는 무역수지불균형이 이어졌다지. 대금결제는 주로 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은이 바닷길 지경까지 염려되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아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니 청나라가 아편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영국이 총포와 함대를 앞세워 청을 침략하고 만 2년 3개월 만에 승리를 거둔 게 제1차 아편전쟁이다. 영국인에게 홍차가 마약이었고, 중국인에게 아편이 마약이었던 셈이다. 당시 영국의 귀족들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멋스러운 도자기에 맛있는 홍차를 담아내는 것으로 부와 권세를 과시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오니, 차의 자리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비싼 도자기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인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이 본차이나라는 데에 이르면 그 차 한 잔에 담긴 이야기들이 자못 궁금해진다.

유유당 산성요은 그런 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산성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와 함께 노상 펼쳐지는 공간이다. 산성도에 분청 이상문 선생의 가업을 2대째 잇고 있는 이종민 작가의 작품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며, 그의 부인인 이기예 선생이 다도와 차담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태어나보니 아버지는 도자기를 굽고 계셨고, 형제들과 함께 그 문





하에서 평생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만들고, 가마에 불을 넣던 작가에게 차 문화를 깊이 공부한 전문가가 연인으로 맺어진 것은 천생의 연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낮에는 산성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저녁에는 유유당으로 퇴근해 내려와 아내와 함께 또 손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게 소중한 일상이다.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는 도자기 이야기에 한국의 차 문화로 시작되어 중국과 일본, 유럽까지 넘어가는 차 이야기가 더해지면 천일야화도 능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2월 18일 낮에는 장정원 강사가 초대되어 ‘백제문화의 일본전래와 일본다도 형상’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다과와 함께 펼쳐졌다. 백제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것은 여러 갈래로 알려진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차문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내용이다. 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차문화를 살펴보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마시는지 배워 보기도 하며, 명화들 속에 깃든 유럽의 차 문화를 함께 들여다 보기도 한다. 조선의 도공 수백 명을 데려가는 바람에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임진왜란에서도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안타까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는 우리의 곁에 잘 보존되고 있는지,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고 먼 곳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유유당에서 늘 곱씹어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다.

“한복 곱게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 몹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다도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 차를 가까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런 형식보다는 차에 대해서 알고 마실수록 더 깊고 재미있게 또 더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다기도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릇을 고르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달라지면 그릇도 달라지겠죠? 언제든지 오시면 궁금한 차의 세계를 알려드릴테구요,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차담에 참석하시면 더욱 유익한 기회가 될 겁니다.”

‘활기를 주되 취하지 않는 음료가 바로 차라고 했던가. 이제는 소주에 맥주값까지 오른다 하니, 답답한 마음은 유유당에서 차 한 잔, 아니 여러 잔 하며 풀어야겠다. 적게는 두 명, 많게는 세 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 원데이 클래스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해주니 한 번 연락해 볼 일이다. 물론 클래스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앉아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회가 닿으면 사직동의 차밭에서 차를 따는 체험을 해 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산성도예의 가마에 불 때는 것도 눈 앞에서 볼 수 있으리라. 어여 유유당에 입당하시라.



**문의 유유당 산성요** 010-3882-7113, [instagram.com/yigyie\\_yuyudang](https://www.instagram.com/yigyie_yuyudang)

# 30년 만에 한국 오는 파리오페라발레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발레 팬이라면 올해 손꼽아 기다리는 공연이 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지닌 파리오페라발레의 내한공연이다. 그동안 파리오페라발레 단원들이 가끔 국내 갈라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전막 공연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3월 3~4일 대전 예술의전당과 3월 8~11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되는 레퍼토리는 1993년과 마찬가지로 <지젤>이다.

파리오페라발레는 흔히 '발레의 종가로 불린다. 발레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지만 프랑스에서 발레학교와 발레단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발레를 좋아했던 루이 14세가 1661년 최초의 무용 기관인 '왕립무용아카데미'를 만든 데 이어 1669년 파리오페라극장의 전신인 '오페라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루이 14세의 이런 조치 덕분에 귀족의 여흥에 불과했던 발레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 발레 용어가 프랑스어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발레 역사에서 파리오페라발레는 19세기 전반 낭만 발레(로맨틱 발

레)를 꽃피운 곳으로도 유명하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산업 혁명 등으로 지친 사람들은 냉정한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런 낭만 사조를 극대화한 낭만 발레는 요정과 같은 신비로운 존재를 주인공으로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1832년 파리오페라발레의 <라 실피드>는 당시 유럽을 낭만 발레의 폭풍으로 휩싸이게 했다. <라 실피드>는 스코틀랜드 농촌을 배경으로 동네 처녀와 약혼을 앞뒀던 청년 제임스가 실피드(공기의 요정)에 매료돼 숲으로 따라갔다가 마녀의 속임수에 실피드를 죽게 만드는 등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아돌프 누리가 대본을, 장 슈나이츠호퍼가 음악을, 필리포 탈리오니가 안무를 맡았다. 실피드 역의 발레리나 마리 탈리오니가 순백의 로맨틱 튀튀를 입고 발가락 끝으로 서서 춤췄을 때 관객들은 실제 요정을 보는 것 같은 환상에 빠졌다. <라 실피드>는 발레를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며 수많은 팬을 낳았다.

<라 실피드>보다 뒤에 나왔지만 높은 완성도로 낭만 발레의 대표작이 된 것은 1840년 파리오페라발레에서 초연된 <지젤>이다. 발레 문외한이라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인 <지젤>은 <백조의 호수>와 함께 발레의 쌍벽을 이룬다. 1막은 시골 처녀 지젤이 귀족 알브레히트를 시골 청년인 줄 알고 사랑했다가 배신당한 뒤 죽음에



사진제공: Agatha Poupenev-파리오페라발레

이르는 비극을, 2막은 연인에게 배신당해 죽은 처녀들의 영혼인 윌리들과 그들의 여왕 미르타로부터 알브레히트를 지켜내는 지젤의 숭고한 사랑을 그렸다. 2막에서 하얀 튀튀를 입은 윌리들이 펼치는 군무는 <지젤>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지젤>은 시인이자 비평가 테오필 고티에의 발레 사랑, 정확히 표현하면 이탈리아 발레리나 카를로타 그리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 발레 애호가였던 고티에는 파리에 온 그리지를 보자마자 마음을 뺏겼다. 그리고 그리지의 아름다움을 불멸로 만들기 위해 작품을 착상했는데,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쓴 독일 전설 연구서 <독일론> 중 처녀 귀신 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파리오페라발레의 전속작가였던 베르누아 생 조르주와 함께 <지젤>의 대본을 완성했다.

파리오페라발레는 당시 인기 있던 오페라 작곡가 아돌프 아당에게 음악을 맡긴 데 이어 당시 장 코라이에게 안무를 맡겼다. 그런데, 여주인공 그리지가 자신의 스승이자 연인인 질 페로를 <지젤>의 안무가로 고집한 덕분에 페로가 극 중 지젤의 솔로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

당대 프랑스 엘리트 예술가들이 힘을 모은 <지젤>은 초연 당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이후 10년간 자주 공연됐다. 하지만 그리지가 은퇴한 이후 띄엄띄엄 공연되다가 낭만사조의 퇴조와 함께 1868년을 끝으로 프랑스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실상 사장될 뻔한 <지젤>이 살아남게 된 것은 유럽보다 늦게 발레 열풍이 분 러시아 덕분이다.

당시 유럽의 뛰어난 무용수들과 안무가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발레단(현 마린스키발레단)에 앞다퉈 몰려갔다. 그중 한 명이 '고전(클래식) 발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리우스 프티파다. 프티파는 원래 댄서로 러시아에 왔다가 얼마 뒤 발레 마스터가 됐다. 황실 발레단에서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 고전 발레를 완성한 프티파는 낭만 발레 <지젤>을 부활시킨 장본인이다.

프티파는 1884년 <지젤>을 무대에 올리면서 1막에 지젤을 위한 솔로춤을 삽입하는 한편 2막에서 여러 나라 윌리들의 춤을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의 독무, 지젤과 알



브레히트의 2인무, 윌리들의 군무로 완전히 바꿨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계 유수 발레단의 <지젤>은 바로 프티파가 다시 안무한 버전을 바탕으로 조금씩 재안무한 것이다.

현재 파리오페라발레의 <지젤>은 1991년 부예술감독 파트리스 바르와 발레 마스터 외젠 폴라코프가 재안무한 것이다. 19세기 낭만주의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살리면서 프랑스풍의 섬세한 춤과 드라마틱한 연기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이 버전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젤의 어머니와 알브레히트 약혼녀 바틸드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연출이다. 바로 바틸드의 아버지가 복잡한 표정으로 지젤 모녀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바틸드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알브레히트처럼 마을에 내려와 지젤 어머니와 사랑했거나 혹은 초야권을 행사해 지젤을 낳게 했다는 설정으로 <지젤>의 비극성을 극대화 한다.

바르&폴라코프 버전의 <지젤>은 국내 발레 팬에게도 낯설지 않다. 바로 국립발레단이 2011년부터 이 버전의 <지젤>을 무대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리오페라발레 오리지널 버전으로 감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다만 지난 2021년 동양인 최초로 에투알(수석 무용수)이 된 박세은이 출산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멀지 않은 시기에 파리오페라발레의 세 번째 내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파리오페라발레의 투어 일정에 부산이 포함되길 기대한다. 2026년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박세은이 주역으로 출연하는 파리오페라발레의 공연을 기대해본다.

3월호부터는 국민일보 장지영기자의 새로운 시리즈 <서울통신원>이 연재됩니다. <서울통신원>은 현재 공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장지영 기자가 직접 전하는 최신 문화계 소식으로, 앞으로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문화계의 새로운 동향과 이슈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전석 3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티켓 오픈일  
정기회원 선오픈 2023. 3. 7.(화) 14시  
일반회원 오픈 2023. 3. 8.(수) 14시



호통판사  
**천종호**  
4.22.(토)  
15:00



미국방송인  
**타일러 라쉬**  
5.13.(토)  
15:00



리치언니  
**박세리**  
6.9.(금)  
15:00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10.14.(토)  
15:00



미술사학자  
**유흥준**  
7.1.(토)  
15: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11.11.(토)  
15:00



# INVITATION TO THE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옴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 ARTS



##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쑥쑥!!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3년 일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 2017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 사랑채극장은 그동안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올해는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 전문예술 단체인 극단 동그라미그리기의 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극단 오오씨어터의 '피터팬'을 비롯하여 한국 최초 그림자극단인 극단 영의 음악극 '피터와 늑대', 그리고 수차례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극단의 명품 뮤지컬 '미운오리새끼'가 무대에 오른다.

입장권 \_ 전석 2만원(36개월이상 관람) ※ '백설공주와 마법거울'은 24개월이상 관람  
문의 \_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3월 16일(목)-4월 27일(목)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흑단같은 머리와 새하얀 피부, 붉은 입술이 트레이드 마크인 '백설공주'는 독일의 동화작가 그림형제의 동화이나 우리에게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족뮤지컬의 단골 소재로, 그동안 다양한 내용과 주제로 관객과 만났다.

이번에 선보이는 극단 동그라미그리기의 '백설공주와 마법거울'은 기존의 '백설공주' 이야기에 동화 속 마법거울에 담긴 의미를 새로이 재조명해보는 작품으로, 거울에 비쳐지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왕비와 거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백설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객들은 작품 속 마법거울이라는 상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그 이면에 담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극단 동그라미그리기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관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시립극단  
**미운오리새끼**

5월 3일(수)-5월 28(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립극단의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는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무대에 오르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미운오리새끼’는 오리 무리 속에 섞인 백조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안 데르센의 동화로, 부산시립극단은 원작이 가진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 ‘미운오리새끼’는 ‘미운오리’에서 환골탈태하여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남는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 ‘백조면서 오리의 노랫구절인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가 되었어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결국 모두 같아요’는 이번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극단 오오씨어터  
**피터팬과 후크선장**

6월 9일(금)-7월 23일(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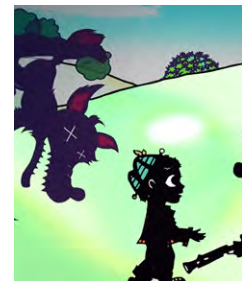


※ 월-화요일 공연없음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제임스 매튜 배리의 소설로, 결코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의 환상적인 모험을 그린 ‘피터팬’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나 연극, 뮤지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극단 오오씨어터의 ‘피터팬과 후크선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팬’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네버랜드를 찾아왔던 웬디와 친구들이 떠난 후의 피터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 피터팬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났던 어린 관객들은 언젠가는 밤하늘을 날아서 찾아 올 피터팬을 기다리는 설렘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부산의 젊은 예술인들로 결성된 극단 오오씨어터는 그동안 사라져가는 전래동화를 무대로 가지고 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극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 2019년 (재)부산문화회관의 ‘2019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이후 ‘2021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21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 초청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극단 영  
**피터와 늑대**

8월 18일(수)~9월 24일(일)  
평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극단 영의 ‘피터와 늑대’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무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 작품인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피터와 늑대’는 용감한 소년 피터가 숲속의 늑대와 싸워 착한 동물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곡가가 작정하고 만든 음악 동화인 만큼 주인공 피터와 늑대, 할아버지, 오리, 고양이 등 여러 등장인물을 각기 다른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영이 부산예술가회와 협업하여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1984년 창단 후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주로 제작해온 극단 영은 ‘피터와 늑대’, ‘동물의 사육제’, ‘불새’, ‘비발디의 사계’ 등 클래식과 그림자극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2023 올해의 예술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3월 무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일시 \_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_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술감독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하는 제598회 정기연주회는 특유의 우수와 고독에 찬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 세계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올해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테마의 두 번째 무대로, 브람스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첫 곡으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당시 창작된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중후하면서도 장대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성이 돋보이는 대작으로, 일반적인 협주곡의 3악장 구성이 아닌 4악장 구성으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한다. 손민수는 이번 무대에 이어 제604회 정기연주회(10월 27일)에서 브람스의 또 다른 피아노 협주곡인 제1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호넨스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부

조니, 클리블랜드, 힐튼 헤드, 루빈스타인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뉴욕 카네기홀, 보스턴 심포니홀, 토론토 글렌 굴드 스튜디오, 오타와 국립예술센터, 클리블랜드 세브란스홀 등 수많은 북미 주요 무대에 올랐으며 보스턴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캘거리 필하모닉, 퀘벡 심포니,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손민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과 더불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으며, 2022 시즌에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의 전국 투어를 가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손민수는 올해 가을학기부터는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1855년, 그의 나이 52세 때 작곡한 ‘교향곡 제4번’은 인생 말년에 들어선 브람스 특유의 진한 고독감과 깊이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들 중 유일하게 피날레에서 장조가 아닌 단조로 마무리함으로써 당시 평론가부터 ‘어두움의 근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3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3월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부산시민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진다.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본인만의 확고한 음악적 신념을 지닌 구도자적 행보의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써오면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손민수는 3월 23일 제598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10월 27일 제604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브람스가 남긴 두 곡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과 제2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021년 도입한 ‘올해의 예술가’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 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그 해 작곡가 김택수에 이어 지난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선정된 바 있다.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기획음악회 ‘심포니아夜’는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곡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이번 ‘심포니아夜’에서는 3월 23일 열리는 제598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음악칼럼니스트 이준형의 상세한 해

일시 \_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_ 전석 1만원  
출연 \_ 최수열(예술감독), 이준형(음악칼럼니스트), 부산시립교향악단(연주)



설과 함께 들려준다.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관객과 만나는 이준형은 가톨릭평화방송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월간 객석, SPO(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스트라드 등에 기고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에서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최수열 예술감독의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일시 \_ 3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_ 전석 5천원  
출연 \_ 최수열(예술감독), 손민수(피아노), 부산시립교향악단(연주)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제598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사랑의 노래



지휘 임창은

◆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부산시립합창단은 3월 23일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로 2023년 첫 출발을 내딛는다.

부산시립합창단의 2023년 첫 무대는 2021년부터 부산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고, 한국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실력있는 지휘자를 초청하여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기 위해 기획된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이다. 2021년에는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객원지휘자 이상길에 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수은이 무대에 섰으며, 지난해는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ACDC) 감독 및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지휘자 Todd Jere Harper가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창은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관광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총신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한 후 도미, 노스텍사스 주립대학교(UNT)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학위와 합창 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창은은 유학시절 UNT 챔버 콰이어인 '칸티쿰 노뎀(Canticum Novum)'의 부지휘자 겸 강사를 역

임했으며,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비롯하여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 전곡을 여러 차례 연주하면서 미주 사회로부터 젊고 촉망받는 지휘자로 호평받았다. 지난 2003년 8월 귀국 후에는 광주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하며 전문 지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07년부터 5년간은 대전시립합창단 상임 부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다. 임창은은 현재 서울 마스터즈 콰이어&체임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연가곡 'Neue Liebeslieder Walzer(새로운 사랑의 노래 왈츠)'를 비롯해 코르골트의 오페라 'Die Tote Stadt(죽음의 도시)' 중 'Mein Sehnen, Mein Wänen(나의 그림이여, 나의 망상이여)',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에릭 휘태커의 'Five Hebrew Love Songs(5개의 히브리 사랑노래)', 그리고 'Kiss-5가지 언어의 입맞춤'이라는 테마로 들려주는 'Der Kuss(입맞춤, 베토벤)', 'Besame Mucho(베사메 무초, 벨라스케즈)', 'Pour Un Baiser(입맞춤을 위해, 토스티)', 'Kiss the Girl(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Il Bacio(입맞춤, 아르디티)' 등 사랑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곡을 선사한다.

**일 시**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 다시봄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한빈

◆ **올해 2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 제7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백승현 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제70회 정기연주회 '다시봄'이 3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도 활동 중인 백승현 수석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지휘 전공)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및 합창 지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 '지휘자포럼'의 회원을 역임한 백승현은 지난 2021년에는 제7회 에른스트 폰 슈호 상을 공동수상했으며, 바덴바덴 필하모니,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리,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등을 지휘하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서울모던앙상블, 서울비르투오지, 앙상블 위로 등을 객원 지휘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와이즈 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한 바 있다. 백승현은 귀국 후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랑프리 아카데미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정한빈의 협연으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슈만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특히 이 두 곡은 작곡 당시 쇼팽과 슈만의 서로 상반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에는 짝사랑으로 끝났던 19살 쇼팽의 첫사랑이, 슈만의 '교향곡 제1번'은 반대를 극복하고 클라라와의 결혼에 성공했던 슈만의 행복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협연자 정한빈은 '청중을 매료시키는 카리스마를 지닌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수석 입학,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정한빈은 그동안 스위스 인터라켄클래식 독주회, 프랑스 아카데미재단 전속 독주회, 폴란드 에마나체 페스티벌 등 국내 및 세계무대에서 독주 및 앙상블 무대를 가져왔으며, 포브스코리아 선정 '2030 파워리더', 롯데 에비뉴엘 선정 'New Creator'에 선정된 바 있다.

**일 시** 3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 집집:하우스 소나타



연출 주혜자

◆ 2023년 올 한 해 지역 및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이 그 첫 무대로 창작극 ‘집집:하우스 소나타’를 선보인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 선정작인 한현주 작가의 ‘집집:하우스 소나타’는 그 해 9월 초연 무대를 가진 후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집집:하우스 소나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주거의 공간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집을 둘러싼 다층적 욕망과 불안을 조명한 작품이다. 서울의 옛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내려다보이는 한 임대아파트. 극이 시작되며 약 2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603호에 거주하게 된 두 인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02년, 60대 여성 박정금은 난지도 무허가 집에서 살다가 새로 건설된 임대아파트 603호에 입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까 늘 불안에 떠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2021년, 603호의 새로운 주인은 갓 혼인신고를 마친 30대 여성 연미진. 어린 이집 교사로 일하던 연미진은 신혼집 구하기란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뒤, 결국 친구의 “빚”을 쓰는 불법을 택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웃들은 대놓고 미진의 입주 자격을 의심하고 미진은 넓디

넓은 싱크대를 리폼하는 과정에서 박정금의 흔적인 숨겨진 돈다발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 작품에서 연출을 맡은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의 상임연출가 주혜자는 서민의 희망이던 국민임대아파트를 배경으로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려 엇박자를 일으키는 사회제도의 모순과 그 속에서 변질되어가는 ‘집’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해체된 가족과 단절된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극작가 및 연출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혜자는 그동안 ‘마이디어, 헬렌’, ‘급제록’, ‘안네 프랑크’, ‘밀다원’, ‘나를 찾아듀오’, ‘제10층’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섬세한 감각과 자신만의 뚜렷한 연출 색깔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그동안 기존의 해외 번역희곡 및 명작희곡을 주로 무대에 올려온 부산시립극단의 연보에 새로운 도전을 더하는 작품으로, 부산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한번의 변신을 꾀하는 한편, 사회적 담론에 관객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 시 3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4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12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감각, 생명



지휘 이정호



사회 송현민



거문고 권은영



태평소 진윤경



신민속악회 바디

◆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3년 새봄을 맞아 ‘감각, 생명’이라는 테마로 특별연주회를 펼친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이정호 교수가 객원지휘하고 국악방송 ‘FM국악당’ 진행자이자 월간 ‘객석’ 편집장으로 있는 송현민이 사회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생명이 꽃 피우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계절, 우리들의 예술적 감각과 생명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창작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객원지휘자 이정호는 제27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제7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작음악제인 ARKO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의 작곡가로 두 번이나 선정된 작곡가로, 묵직한 고민과 철학으로 국악관현악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남대학교 국악과와 오스트리아 프란츠 슈베르트음대 석사과정(작곡)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 대구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J국악오케스트라, 부산창작음악연구회 예술감독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손다혜 작곡 ‘그대, 꽃을 피우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영웅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

사를 담아 세 개의 악장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관현악이다. 이어서는 정읍사 주제에 의한 거문고 협주곡 ‘봄의 정원으로 오라’(김영재 곡, 차민영 편곡)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이자 부산거문고악회 고문으로 있는 권은영의 거문고 협연으로 들려준다. 대금산조의 명인 서용석이 스승 방태진의 태평소 시나위 가락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악합주곡을 이정호 지휘자가 국악관현악 편성에 맞게 편곡한 태평소 시나위 협주곡 ‘태평’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진윤경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2부 첫 곡은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최지혜 곡). 이 곡은 한국의 크고 작은 강이 갖는 생명력과 정화의 이미지를 서사적으로 펼쳐낸 곡이다. 이어서는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에서 불화살이 빗발치는 장면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불의 계곡’(이창희 곡)을 영남지역 국악인들로 구성된 신민속악회 바디의 연주로 들려준다. 2016년 창단한 신민속악회 바디는 전통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해석하여 가장 한국적인 특색과 창의성을 담은 음악을 창작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인간의 삶을 우주에 비유하여 삶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아 작곡한, 연주시간만 70여 분이 되는 교향곡 제1번 ‘별’(이정호 곡)로, 이번 공연에서는 웅장한 대합창과 함께하는 4악장을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들려준다.

**일 시**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스페인 음악에서부터 낭만발레까지 유럽의 감성을 느끼다

2023년 새 봄, 유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유럽 최고의 스페인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가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어지는 4월 7일과 8일, 부산시민회관에서는 1841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낭만발레의 걸작 '지젤'이 무대에 오른다.

### 유럽 최고의 스페인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일시 \_ 4월 6일(목)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_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말라가(Málaga)는 피카소의 고향으로 알려진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항구도시로,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작열하는 햇빛으로 유명한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콘체르토 말라가는 이 곳 안달루시아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이 지난 1996년, '98세대' 소속의 작가들이 남긴 음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창단한 팀이다. '98세대(1898 Generation)'란 지난 1898년, 스페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무너져가는 조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스페인 부흥의 정신을 부르짖었던 예술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7세기 스페인 음악부터 현대의 대중음악까지 아우르며 스페인시 클래식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콘체르토 말라가는 7대의 바이올린과 3대의 비올라, 2대의 첼로, 더블 베이스와 하프시코드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로,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엔리케 그라나도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음반 'Serebrier

Conducts Granados'가 라틴그래미어워드 베스트클래식앨범 후보에 지목되면서 세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콘체르토 말라가는 창단 후 독일, 핀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튀니지, 영국 등 1,000회 이상 세계 순회연주를 다녔으며, 클래식 기타의 거장 페페 로메로,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나 시르부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협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첫 내한공연을 통해 스페인 특유의 열정넘치는 무대를 선사하여 국내 음악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이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와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이자 김병효류가야금산조연구회, 부산양금앙상블 회원으로 있는 가야금주자 김소정의 협연으로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스페인시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콘체르토 말라가



첼로 홍승아



가야금 김소정



© Universal Ballet

◆  
 시대를 뛰어넘은 낭만발레의 대명사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  
 일시 \_ 4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3:00  
 장소 \_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_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발레 ‘지젤’은 흔히 발레 하면 떠오르는 순백의 로맨틱 튜튜를 입은 발레리나들의 군무, 주역들의 화려한 테크닉과 사랑이야기 등 명작의 요소를 고루 갖춘 작품이다. 귀족 신분의 남자와 평범한 시골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송고한 사랑을 주제로, 19세기 문예사조에서 찬미했던 초자연적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젤’은 예술성과 작품성에서 세계무대의 인정을 받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로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에 대한 호평과 열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진 세계적 수준의 군무에서 찾을 수 있는데, 푸른 달빛 아래 순백의 면사포와 로맨틱 튜튜를 입은 윌리들이 공기 속을 부유하듯이 시시각각 대열을 맞추며 정교하게 추는 춤은 백색 발레의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발레가 장기인 유니버설발레단의 매력이 돋보이는 윌리들의 군무는 낭만 발레가 추구하는 예술성을 잘 표현하는 장면으로, 작품 속 또 다른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주인공 지젤이 보여주는 극적인 연기 변화와 초자연적

러브스토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1막에서는 순수하고 발랄한 시골 처녀의 모습에서 사랑의 배신에 오염하며 광란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2막에서는 영혼 윌리가 된 지젤이 죽어서도 연인을 지키려는 송고한 사랑의 감정연기로 좌중을 몰입시킨다. 고난도의 테크닉은 물론 기교 이상의 내면 연기력이 요구되기에 ‘지젤’은 발레리나라면 반드시 도전하고 싶은 배역으로 꼽히고 있다.

1984년 5월 12일 창단된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으로, 그동안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17개국 1,800여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성장해왔다. 유니버설발레단은 러시아 발레의 화려하고 웅장한 고전발레 레퍼토리를 넘어 모던발레 안무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레퍼토리를 넓히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 발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1986년에는 한국 창작 발레 최초의 작품인 ‘심청’을 제작, 이후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의 본고장인 러시아와 프랑스에 진출하여 현지 관객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쯤인 I

일 시 | 3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향의 쯤인 I'.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첫 무대에서는 감각적인 테크닉과 세련된 음악성으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보에 수석 고관수와 차세대 클래식을 이끌어갈 다재다능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원이 함께한다.

프로그램

카를 바흐/오보에 소나타 사단조 Wq.135  
브리튼/템포랄 변주곡  
실베스트리니/오보에를 위한 6개의 연습곡  
슈렉/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장조  
작품 13 등

2023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송인문화재단 010-4183-2293



(사)송인문화재단이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마련해오고 있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2023년 무대.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사)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이혁진, 첼리스트 이경현 부자로 구성된 Duo Hymns이 특별출연, 웅장하면서도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들려준다.

- 단장/변원탄(송인문화재단 이사장)
- 지휘/김강규 • 피아노/권준
- 특별출연/Duo Hymns(이혁진&이강현 부자)

La Prima 창단연주회 **봄날의 위로**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라 프리마 010-2370-9461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 위해 모인 '라 프리마' 창단연주회.

2023년을 시작하며 첫발을 내딛은 라 프리마는 앞으로 솔로, 앙상블, 실내악 등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라 프리마(La Prima)'는 이탈리아로 '첫 번째'라는 뜻.

이번 창단연주회에서는 새봄을 맞아 라 프리마만의 색깔이 있는 무대로 봄날의 위로를 전한다.

- 피아노/김정훈(대표), 안승우, 정효인, 윤인아, 임미진, 조은애, 안시현
- 바이올린/김재영
- 첼로/양지민, 김나현

이민아의 춤 葉

일 시 | 3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이민아 무용단(010-5051-0242)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자 지난해 부산 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춤꾼 이민아의 무대. '이민아의 춤'은 지난 1991년 이매방 선생을 처음 사사하면서 한국전통

춤에 대한 경의심과 기나긴 춤 공부의 과정을 담고자 시작된 무대로, 2003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전통 춤의 씨앗을 뿌리는 의미를 담아 마련한 '種(종)'을 시작으로, 2014년 새싹을 틔우는 '筍(순)', 2017년 줄기를 뿜는 '脈(맥)'에 이어 2020년 '脈(맥)II'까지 꾸준히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葉'에서는 40년의 춤 인생을 바탕으로 긴 시간 춤 공부를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승무, 태평무, 검무, 동래학춤, 입춤, 살풀이춤, 버꾸춤 등 전통 춤의 멋과 흥을 선사한다.

간판때부산 창립기념음악회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의 밤 **상생(相生)**

일 시 | 3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9550-4649  
간판때부산 010-3808-4609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간판때부산의 창립기념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피가의 결혼',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푸치니 '사랑의 묘약'을 비롯해 베르디, 구노, 슈트라우스, 비제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대표/박대용
- 음악감독/정국련
- 소프라노/이은미, 김은수, 변향숙,



이윤정, 설은경, 신민연, 이수진, 한인숙, 이연진, 윤비연, 정애린, 박해미, 박은경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강희영
- 테너/김준연, 조성홍, 이우정, 강도호, 박성백
- 바리톤/박대용, 이승우, 윤봉원, 최모세
- 베이스/손상혁, 이기백
- 피아노/송지은, 조은지, 신세라, 김수희

부산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  
영원한 친구, 노래

일 시 | 3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은파합창단 010-7325-6773



지난 2010년 5월, 음악을 사랑하는 55세 이상 부산지역 여성으로 창단한 부산은파합창단 정기연주회.

현재 6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은파합창단은 합창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가꾸는 한편,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합창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부산은파합창단은 2019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8회 발리 국제합창페스티벌에서 실버합창 부문 금메달 없는 은메달, 민속민요 부문 은메달을 수상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 회장/차순남 • 단장/이미자
- 지휘/우원석 • 피아노/엄혜경
- 특별출연/해피앙상블,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 (재)부산문화회관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지난 2021년, 팬데믹의 여파로 6년 만에 열린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가 첫 내한 독주회를 갖는다. 브루스 리우는 콩쿠르를 통해 증명한 뛰어난 테크닉과 나이를 넘어서는 성숙함, 그리고 기존의 해석을 뒤엎는 참신한 연주로 세계 음악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뮤지컬 알쌍달쌍 캐치! 티니핑 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일 시 | 3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TV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치! 티니핑' 세 번째 시즌을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알쌍달쌍 캐치! 티니핑\_신비한 상자를 열어라' 마스터키를 손에 넣은 제니는 미스틱 마을을 장악하여 열쇠티니핑들을 지구로 보내버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로열티니핑들이 도망쳐 게이트를 건너게 되면서 로미와 하츠티핑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땄 수 없는 화려한 연출과 하모니 마을을 그대로 재현한 무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과 조명, 캐릭터 배우들의 신나는 노래와 안무까지 최고의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봄의 속삭임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음악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피아노 트리오의 세계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정윤혜,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오서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렉처 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부산MBC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아트뱅크코리아 2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이자이/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발라드'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G. 카사도/사랑의 속삭임(Requiebros)  
 멘델스존/피아노트리오 제1번 라단조 작품 49

### 동화양상을 제회 창단연주회 冬花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동화양상블 010-9992-0730



바이올리니스트 장가영, 첼리스트 유호정, 피아니스트 이윤호, 정이삭, 추동현, 손소미 등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선후배가 모여 결성한 전문연주단체 冬花[동:화] 양상블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쇼팽/스케르초 제1번 나단조  
 포레/시실리아느 작품 78  
 브람스/첼로소나타 제1번 마단조 작품 38 제1악장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9번 마장조  
 생상스/네손을 위한 죽음의 무도 작품 40  
 브람스/피아노트리오 제1번 나장조 작품 8 제1악장

###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A Star is Born

일 시 | 3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BMPO 070-7727-0188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여러 장르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대중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부산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7월 창단 후 2011년 5월,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로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받고 이듬해 9월, 전문예술법으로 지정된 바 있다. 상임지휘자 김영수가 지휘하고 푸른소리아이들, 어린이예술단 햇살나무, 차세대 주역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귀에 쏙 들어오는 우리말 동요와 아름다운 가사의 가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영수(상임지휘자)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일 시 | 3월 16일(목)-4월 27일(목) 평일 오전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023년 들어 처음 마련하는 가족 뮤지컬.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 전문예술 단체인 극단 동그라미그리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백설공주' 이야기에 동화 속 마법거울에 담긴 의미를 새로이 재조명해보는 작품으로, 거울에 비치는 걸모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왕비와 거울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백설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일 시 |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교향곡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무대 '심포니아夜'.

이번 무대에서는 3월 23일 열리는 제598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음악칼럼니스트 이준형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음악칼럼니스트 이준형은 현재 가톨릭평화방송 FM '이준형의 비온드 클래식' 진행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휘/최수열 • 해설/이준형

## 더뉴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더뉴 The New&모란 Moran

일 시 |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UKO 988-3087



바이올린 앙상블 모란과의 합동무대로 마련될 더뉴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더뉴&모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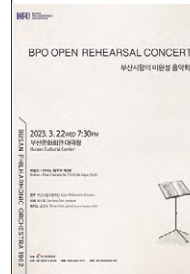
지난 2021년 현악, 성악, 목관 등 지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결성한 더뉴 앙상블은 부산시 전문예술 지정단체로, 수준 높은 연주로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앙상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의 제자들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들로 결성된 바이올린 앙상블 모란은 지난 2020년 12월 창단 후 이듬해 6월 창단연주회를 가지고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났다.

- 지휘/전희범(경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악장/이리나 • 플루트/김민정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일 시 | 3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미완성 음악회'.

특히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598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지휘/최수열 • 피아노/손민수

## 오페라단 나눔 신춘음악회 봄이로구나

일 시 | 3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단 나눔 010-9298-7949



2018년 창단 후 '함께하는 오페라'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오페라단 나눔 신춘음악회. 오페라단 나눔은 그동안 지역 음악인들과 양질의 작품을 제작하며 젊은 성악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극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영화 OST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왕기현, 정혜리, 정수정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이철성, 장지현
- 바리톤/한정현, 김성결, 유용준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피아노/박재나, 임상무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8회 정기연주회.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세계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 협연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에 이어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는 '6 Last Works'로,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협연자 손민수는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강렬한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겸비한 피아니스트이자 본인만의 확고한 음악적 신념을 지닌 구도자적 행보의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 지휘/최수열 • 피아노/손민수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사랑의 노래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합창계를 이끌고 있는 실력있는 지휘자를 초청,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사랑의 노래'.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관광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무대로,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창은이 부산관광객 첫 만남을 갖는다.

현재 서울 마스터즈 콰이어&체임버오케스트라, 사랑의교회 영광찬양대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창은은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의 연가곡 'Neue Liebeslieder Walzer(새로운 사랑의 노래 왈츠)'를 비롯해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일 시 | 3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 덕지석(1층) 6만원, 선녀님석(2층)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3/11까지 예매 시  
35% 할인)  
문 의 | (주)씽크브릿지 1533-7446



동네 낡은 목욕탕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판타지의 세계 '장수탕 선녀님'.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작가 백희나의 작품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가족 공연 4년 연속 판매랭

킹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큰길에 생긴 스파랜드에는 게임방도 있고 얼음방도 있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런데 냉탕에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아주 아주 오래된 목욕탕에서 펼쳐지는 선녀 할머니와 6살 꼬마 덕지의 가슴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한다.

## 윤승환 타악 독주회 還入

일 시 | 3월 26일 일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윤승환 010-2595-6700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승환의 타악 독주회.

공연 타이틀인 '환입(還入)'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도드리라 부르는데, 우리 음악의 오랜 역사와 함께하며 음악적 파생을 거듭했고 과거, 오늘, 미래에도 함께할 예술의 끊임없는 구동

역사와 함께하며 음악적 파생을 거듭했고 과거, 오늘, 미래에도 함께할 예술의 끊임없는 구동력이 되는 용어이다.

오늘의 '환입(還入)'이 한 번의 작은 울림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자 기획한 이번 무대에서 윤승환은 관악 영상화상 중 상령산과 중령산, 판소리 고법(鼓法), 그리고 창작곡 '해돋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타악의 다양한 모습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다시봄

일 시 | 3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 2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 제7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백승현 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제70회 정기연주회 '다시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도 활동 중인 백승현 수석지휘자는 서울

대학교 작곡과(지휘 전공)를 졸업하고 도독,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및 합창 지휘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21년에는 제7회 에른스트 폰 슈호 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정한빈의 협연으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동갑내기 작곡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슈만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 (재)부산문화회관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3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절친한 동료이자 오랜 시간 음악적 소통을 이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양인모는 2015년 파가니니 국제바이올린콩쿠르가 9년

만에 배출한 우승자이자 2022년 시벨리우스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다솔은 일본 나고야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유수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지난해 제16회 빈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버르과 브람스, 베아트 푸러, 베토벤의 곡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극단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일 시 | 3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4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12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올 한 해 지역 및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이 올해 첫 정기공연으로 마련한 창작극 '집집:하우스 소나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 선정

작이자 그해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한 한현주 작가의 '집집:하우스 소나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주거의 공간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집을 둘러싼 다층적 욕망과 불안을 조명한 작품이다.

- 작/한현주
- 객원연출/주혜자

## 제4회 루체살레 정기연주회 12 프리마돈나 앙상블 가곡과 아리아가 있는 봄의 제전

일 시 | 3월 30일 목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루체살레 010-5015-9215



소프라노 김유섬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실력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루체살레 정기연주회.

지난 2021년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루체살레는 이번 무대에서 김유섬, 박은주, 양송이, 김유진,

김난영, 엄남이, 김시하, 조윤정, 백혜정, 오예은, 정수정, 김리라 등 12명의 소프라노가 2023년 새봄을 노래하는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단체명인 '루체살레'는 '빛과 소금'이라는 뜻으로, 부산·경남지역 음악계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붙인 이름이다.

- 피아노/심하정, 권수빈,
- 소프라노/류가은 • 해설/김성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일 시 |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작업에 꾸준히 힘써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3년 새봄을 맞아 '감각, 생명'이라는 테마로 마련한 특별연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이정호 교수가 객원지휘하고 월간 '객석' 편집장으로 있는 송현민이 사회를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생명이 꽃 피우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계절, 우리들의 예술적 감각과 생명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정호 • 사회/송현민
- 거문고/권은영 • 태평소/진윤경
- 연주/신민속악회 바디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윙스-스노우페스티벌

일 시 | 3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5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온라인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주)더화랑이엔티 1800-6567



세계의 문화와 환경,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로 날아가는 슈퍼윙스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출동! 슈퍼윙스-스노우페스티벌'.

TV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출동! 슈퍼윙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택배 비행기 호기와 워든 딱딱 만들어내는 도니,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구조임무를 완수하는 아리, 똑소리 나는 발랄한 우주비행기 셋별 등 슈퍼윙스 친구들의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뮤지컬 메카드볼 지구를 지켜라!

일 시 |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  
3/12까지 예매 시 40% 할인)  
문 의 | 디피플컴퍼니 031-8013-1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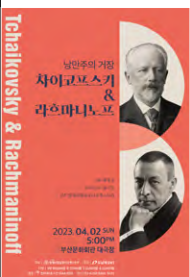


TV애니메이션으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메카드 시리즈를 3D 홀로그램으로 제작한 뮤지컬 '메카드볼 지구를 지켜라!'. 메카드 시리즈는 모든 종류의 공을 잘 다루는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 차영웅이 신비의 구슬인 메카드볼을 이용해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로, 박진감 넘치는 액션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악당 블랙코마가 사라진 후 도시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바다의 세터를 없애고 지구를 장악하려는 OMS. 바다의 메카드볼 세터와 육지의 메카드볼 세터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 총연출/최현주 • 연출/이준상
- 예술감독/김연백

낭만주의 거장 차이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일 시 | 4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9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문 의 | 두남재ENT(주) 02-6292-9368, 9370



지난 2003년 창단 후 그동안 다양한 교향곡과 오페라 연주, 기획공연,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와의 협연을 통하여 연주력을 인정받아온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2008년부터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다올(다 함께 어울어짐) 프로젝트를 기획, 음악의 국제 언어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역할을 해온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전임지휘자 최영선이 지휘하고 정동 러시아 피아니즘을 구현하는 피아니스트 윤아인의 협연으로,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두명의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들려준다.

- 지휘/최영선 • 피아노/윤아인

문화관 모이라 119 옆 낙원빌딩

일 시 | 3월 23일(목)-2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예매 시 30%, 청소년·학생 40% 할인)  
문 의 | 문화관 모이라 010-9701-0712



운명처럼, 좋은 공연을 지향하는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모여서 날카로운 인식과 따뜻한 정서를 함께 나누는 극단 '문화관 모이라'의 '119 옆 낙원빌딩(원제:나는 죽는다)'.

이번 무대는 119 안전센터, 그리고 이웃한 낙원빌딩, 그 두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그곳에 깃든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를 그려낸 작품으로 고풍화 사회, 자살률의 증가, 안락사 허용 등 '죽음'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어진 동시대에 '죽음'을 사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무대이다.

- 작, 연출/김숙경
- 출연/배진만, 강원재, 김아름, 이태경, 이한성, 한혜민, 김건, 이동광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Live Show' 무지개물고기

일 시 |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오즈 1661-6702



전 세계 3,00만 부 이상 판매, 5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된 마르쿠스 피스터의 동명의 그림책을 뮤지컬로 제작한 '무지개물고기'.

욕심쟁이 어린이가 친구들과를 떠나보내고 우연히 멧쟁이 MC 가재를 만나 바닷속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들이 도착한 푸른 바다 마을에서는 무지개 물고기와 바다 친구들의 레인보우 콘서트 준비가 한창인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크가 나타나 훼방을 놓기 시작한다. 이번 무대는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국내 최초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로, 환상적인 무대와 영상으로 신비로운 바닷속 판타지 월드가 펼쳐진다.



음악

해설이 있는 특특특 실내악 페스티벌

일 시 | 3월 3일(금)-24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2023년 새봄을 맞아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실내악 페스티벌.

3일(금) 금난새, 리수스  
 콰르텟\_pf 서현민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실력파 현악그룹 리수스 콰르텟, 그리고 지난 2021년 독일 본 베토벤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서현민의 무대.



라틴어로 '웃음을 뜻하는 리수스(Risus) 콰르텟은 지난 2020년 바이올리니스트 이해니, 유지은, 비올리니스트 장은경, 첼리스트 이보배로 창단한 현악4중주단으로, 창단 이듬해인 2021년 세계 최

대 실내악 콩쿠르인 미국 피시오프 체임버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 영국 위그모어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 특별상, 미엘로우스프링스컴피티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0일(금) 조윤범 콰르텟엑스  
 극동아트TV(예당아트TV)에서 방영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통해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년에 평균 100회가 넘는 공연강의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써온 콰르텟엑스의 무대. 콰르텟엑스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해설가로 이름난 조윤범이 해설을 맡아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 해설/조윤범
- 연주/콰르텟엑스(바이올린 조윤범, 양승빈, 비올라 홍성원, 첼로 임이랑)

17일(금) 동백유랑단  
 비올리니스트 가영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클래식 아티스트와 국악 명인으로 구성된 동백유랑단의 무대.

그동안 서양과 동양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월드뮤직을 새롭게 재해석한 컨템퍼러리 크로스오버 장르를 선보여온 동백유랑단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 신시사이저, 퍼커션, 피리, 태평소 등 다양한 음색의 악기로 특색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 비올라/김가영 · 바이올린/조혜운
- 피리/진훈준 · 피아노/이동욱
- 타악기/이경민 · 바리톤/강태영

24일(금) 디 첼리스트  
 부산을 비롯 대구, 울산 및 경남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들로 구성된 디 첼리스트의 무대.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디 첼리스트(Die Cellisten Ensemble)은 리더 정준수를 중심으로 지난 2015년 창단된 후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3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5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8일(제808회) 홍승아 첼로 독주회  
 콜럼버스 인디애나 필하모닉, 아스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의 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도미, 인디애나음대 전문연주자, 최고연주자, 석사과정 및 고음악 복수전공으로 수석 졸업한 홍승아는 인디애나폴리스 마티니 뮤지컬 콩쿠르 우승, 오사카 국제콩쿠르 2위 및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첼로와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작품 40  
 카푸스틴/벌레스크 작품 97  
 라흐마니노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22일(809회) 문지웅 튜바 연주회  
 한국을 대표하는 튜바리스트 문지웅의 무대.  
 문지웅은 그동안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앙상블 무대를 통해 독주악기로서의 튜바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입증하며 독주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위령제 작품 10 제8번  
 알렉산드르 탄스망/바순을 위한 소나타  
 슈만/아다지오&알레그로 등 수곡

29일(810회) 가야금 산조의 멋  
 단국대학교 교수 이수진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정효성의 가야금 산조 무대. 저음을 많이 사용하여 중후한 멋을 풍기는 심상건 가야금 산조와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격조가 담긴 성금연류 가야금산조를 들려준다.

- 장구/최병길

백선경 지휘 CONCERTO

한아라와 함께하는 합창여행  
 일 시 | 3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아라 010-2886-0544



아뉴스데이 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백선경과 떠나는 합창여행.  
 포레, 모차르트, 구노, 비제 등 아름다운 성가합창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프로그램  
 포레/파반느 작품 50 중 '키리에'

모차르트/대관미사 K.317 중 '글로리아' 비제/아를의 여인 중 '아뉴스데이' 등

- 지휘/백선경 · 반주/김현정
- 소프라노/이수진, 안순정, 박지은, 노효진
- 메조소프라노/양라운, 서승현, 유주현, 이은지
- 테너/양승엽, 김현성, 서치환, 김영수
- 베이스/김성복, 장진웅, 김민형, 김기환, 김대원
- 중창/콜로세움 남성중창단(지휘/서치환, 반주/정은경)

## 3월 음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3일(제489회) 제3회 윤민우의 더블베이스쇼  
아모스양상블 음악감독이자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음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샌토 챔버소사이어티, 양상블 플뢰르, 주에 베이싱양상블, 양상블블루 단원으로 있으며 다양한 무

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리스트 윤민우의 무대.

### 프로그램

현대미트/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디터스도르프/비올라와 더블베이스, 피아노를 위한 합주 협주곡

쿠세비츠기/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 피아노/조아라 • 비올라/양승호

### 10일(제490회) 피스 싱어즈 리사이틀

중후한 남성의 음색과 파워풀한 하모니, 센스있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수놓는 피스 싱어즈의 무대.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준연,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박순기로 구성된 피스 싱어즈는 그동안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가요, 팝 등 모든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 17일(제491회)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특별연주회 '봄, 명곡을 노래하다'

#### 회 '봄, 명곡을 노래하다'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서보람, 김진희, 김혜선, 이현욱, 심하정으로 구성된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의 무대.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연주 프로그램

베토벤/바가텔 가단조 작품 25 '엘리제를 위하여'  
슈만/'어린이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랑게/꽃노래

그리그/'페르귄트' 중 '솔베이그의 노래' 등

### 24일(제492회) 애향(사랑의 울림)

부산성악가협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이자 Ato Music 대표로 있는 테너 김성과 독일코리아재단 성악가로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정애린, 해운대구

여성합창단 트레이너이자 KAN엔터테인먼트 소속 성악가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는 소프라노 문선영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우리가곡의 밤.

• 피아노/정경아, 김재준



### 31일(제493회) 친친탱고 리사이틀

작곡가 겸 반도네온 연주자 김중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으로 구성된 탱고앙상블의 무대.

단체명인 '친친(CHINCHIN)'은 영어로는 가벼운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로는 '건배', 그리고 한국어로는 '친한 친구의 줄임말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탱고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소리꾼 이자람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바탕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판소리 공연으로는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능 소리꾼 이자람의 전통 판소리 시리즈 첫 번째 무대.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매진행렬을 기록했던 창작 판소리 '사천가', '억척가', '노인과 바다'의 창작자이자 소리꾼으로, 특히 2019년 11월에 초연된 '노인과 바다'는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세계 무대에서 판소리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궁가'의 주요 부분을 메인 레퍼토리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판소리의 하이라이트(눈대목)를 들려준다.

• 교수/이준형

## 김새로미 첼로 독주회

일 시 | 3월 9일 목요일 오후 8:00  
대동대학교 디아트홀  
입장료 | 전석 1만원(인터파크 예매)  
문 의 | 김새로미 010-9357-1118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IPB 챔버오케스트라, 윈드첼로,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O Trio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김새로미 독주회.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계명-쇼팽음악원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폴란드 유학, 바르샤바 국립음악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새로미는 귀국 후 인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수많은 국제 페스티벌에서 연주와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며 전문연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무대는 솔리스트로서의 면모가 기대되는 무대로, 피아니스트 박민선과 함께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를 연주하며, 첼리스트 양욱진 교수와는 헨델의 '두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 강나래 클래스 연주회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강나래 클래스 010-3500-9889



국내외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강나래의 클래스 연주회.

경성대를 졸업하고 도이, Licinio Refice di Frosinone 국립음악원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Accademia Musicale Internazionale

ARENA 최고연주자과정과 이탈리아 시립아카데미 A.M.I 조교과정을 수료한 강나래는 로마 성탄 기념 축제 솔리스트 출연, 영국 런던과 호주 골드코스트 초청 연주, 스코틀랜드 4개 도시 초청 순회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지은, 남제진, 김서윤, 황정문, 이사랑, 손아현이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안지현

### 지브리스튜디오 스페셜 음악회

일 시 | 3월 12일 일요일 오후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계명대학교 관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첼리스트 이명로의 무대. 대구 MBC 찾아가는 음악회 객원수석, 앙상블 Schwach relz 악장, 계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수석을 역임한 이명로는 이번 무대에서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하늘의 움직이는 성, 선과 밀의 아리아에티, 거드건기:어스시의 전설, 마녀배달부 키키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OST를 들려준다.

- 피아노/박주희

### 박주현 클래스 작곡 발표회

일 시 |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주현 010-9269-6319



연세대학교 작곡과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작곡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예술고등학교 전공 실기강사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작곡가 박주현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작곡 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YML 작곡 클래스 학생들인 김도경(숙명여대), 이도희(숙명여대), 김도경(중앙대), 정주영(부산예고), 김윤슬(부산예고), 이은채(이사벨고)가 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가곡 등 다양한 편성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봄의 정취를 담은 창작곡을 들려준다.

###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일 시 | 3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경챔버오케스트라 010-3146-8434



지난 2020년 창단 후 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독특한면서도 따뜻한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온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부경챔버오케스트라는 앞으로 단원 개인의 뛰어난 실력과 완벽한 앙상블, 그리고 정통 클래식과 대중적인 편곡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의 대중화와 부산문화 발전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바흐/플루트협주곡 라단조 Wq.22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작품 26

- 지휘/김태훈 • 악장/노수진
- 협연/김승연(플루트), 이동형(클라리넷)

###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3월 21일(화), 28일(화)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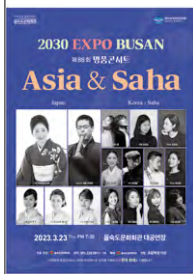
21일(제22회) 삶이 지친 그대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노래  
 박재화 대표를 필두로 바리톤 최판수, 최정수, 소프라노 김시하, 김민성, 테너 박동운, 피아노 김아영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Art

Company the Lirico의 무대.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노래로 어루만지고 힘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28일(제23회) Stage on 처랏  
 뜨거운 열정과 패기의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의 무대. 지난해 창단되어 주목받은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마임, 마칭, 퍼포먼스를 결합한 융복합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제88회 울속도 명품콘서트 신춘음악회 Asia & saha 아티스트 콜라보

일 시 |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아시아의 유명연주자와 부산 사하구 예술인이 함께하는 울속도 명품콘서트 2023 신춘음악회.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고토 연주자인 오사카음대 교수 카타오카 리사를 비롯해 하시모토 게이코, 시마다 야네, 하라 마리 등 고토 연주자와 일본의 전통 관악기인 샤쿠하치 연주자 에바 카이잔이 출연,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신디사이저, 드럼 등 부산의 연주자들과 함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를 펼친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혼성 팼페라 팀인 팼페라 휴의 감성넘치는 무대도 만날 수 있다.

### 2023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일 시 | 3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이스츠가 영아티스트들을 위해 마련하는 2023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201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참신하고 열정 넘치는 연주활동을 이어온 부산솔로이스츠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를 기획, 우수한 기량의 신인연주자들의 협연무대를 마련해오고 있다.

- 지휘/박성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플루트/하연두(연제초등 6학년)
- 피아노/김규림(부산예중 2학년), 박소은(부산예고 1학년), 송승민(목원대 2학년), 조재혁(부산대 2학년), 서은빈(경성대 3학년)
- 바이올린/류다원(부산대 3학년)

## 제15회 굿모닝 콘서트 JS기타의 품격에 취하다

일 시 |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 콘서트'. 부산을 대표하는 중경기타리스트 고충진, 정달숙과 라이징 기타리스트 고성현, 고정현의 연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움만 쌓이네', '비와 당신' 등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와 클래식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고성현, 고정현은 이미 을숙도문화회관 숲표공연에서 뛰어난 기량과 젊은 감성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신춘음악회 다시 복음으로

일 시 |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CBS 636-0050

클래식과 대중과의 간격을 좁히고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음악산책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창단한 부산CBS교향악단 신춘음악회. 상임지휘자 정두환이 지휘하고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IPB첼로앙상블, Wonder Cello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양옥진, 유라시안 필하모닉 수석이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치로 있는 트럼페터 알렉세이 볼코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종교적인 엄숙함과 송고미를 강조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4악장을 비롯해 포퍼, 드보르작, 하이든, 주페의 곡을 들려준다.



## 연극

### 코믹연극 택시 안에서

일 시 | 1월 1일(일)-3월 26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30, 6:00(월-화요일 공연 없음) 해바라기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감동과 반전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 '택시 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연애 초보 하영과 소희는 연애를 시작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서로 지쳐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극 '택시 안에서'는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택시기사 민수와 손님 하영의 85분간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 1월 5일(목)-4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 남자가 벌이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와이프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호와 강건을 초대한 정민.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이 사라졌다. 그들 앞에 나타난 시체와 정체 모를 여자, 그리고 조폭까지, 어چه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영화 '행오버'를 패러디한 '불편한 타이밍'은 특히 심 없이 바뀌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일 시 | 3월 25일(토)-6월 1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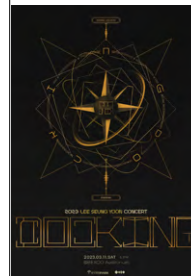


한국 초연 22년 만에 성사된 역사적인 한국어 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전 세계 1억4천5백만 명을 매혹시킨 걸작으로 토니상, 올리비에상을 포함하여 메이저 어워즈 70여개를 석권한 '오페라의 유령'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34년 넘게 동시에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불세출의 명곡이 선사하는 가면 속의 감춰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오페라의 유령' 역의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을 비롯해 다시는 만나기 힘든 최정상 캐스팅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콘서트

### 2023 이승윤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1인 4매 제한)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서 우승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 이승윤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이자 지난 2월, 2년 만에 발표한 정규앨범 '꿈의 거처' 이후 처음 선보이는 무대.

### 해운대문화회관 봄소풍 토크 콘서트 - 송창식, 김세환, 양현경

일 시 |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행사

### 3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7: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 전문 음악 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3월 영상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교향곡 등 관현악곡을, 금요일에는 고전, 낭만을 아우르는 인기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마리아 칼라스 탄생 100주년 기념 특집)/영화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3일),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1955년 레코딩(10일), 비제 '카르멘' 1964년 레코딩(17일), 마스네 '마농'(24일), 푸치니 '마농레스코'(31일) 콘서트(베토벤 특집)/영화 '베토벤'(7일), 교향곡 제3번, 피아노협주곡 제3번(14일), 교향곡 제5번, 피아노협주곡 제5번(21일), 교향곡 제7번, 바이올린 협주곡(28일)

###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클래식 전도사 '앙드레 류'의 <Wonderful World> 공연실황 베토벤의 코랄판타지, 합창교향곡, 가곡 아델라이데 바로크 음악특집-비발디, 바흐, 헨델의 대표음악

추억의 성악가-3Tenor 미국 L.A 공연실황  
 신춘특집-봄 주제의 클래식음악 하이라이트

### 제182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봄, 꽃, 편지, 주제 詩낭송회

일 시 | 3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詩낭송문학회  
 010-6367-0149

- 출연/정길언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 성악가/바리톤 김기범

### 3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6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월) 오후 7:00 니체를 읽는 오후 '니체의 망치와 그리스 비극'

- 강사/김삼근(철학박사, 컬럼니스트)

13일(월) 오후 7:00 일본의 스승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을 논하다 '문명론 개략'

- 강사/성희엽(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

16일(목) 오전 11:00 낭독과 낭송, 시조창(時調唱)과 詩수다 '골목길 나의 집(이연진 췌, 박희병 譯, 돌베개, 2009)'

20일(월) 오후 7:00 몸으로 보는 영화, 헤어질 결심

- 강사/이왕주(철학박사, 부산대 명예교수)

27일(월) 오후 7:00 몸이 보내는 신호와 징후들

- 강사/조흥규(약사, 사단법인 남명학 부산연구원 이사장)



### 예필의 종합예술 렉처콘서트(9) 보사노바&탱고와 남미 미술의 어울림

일 시 | 3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필 최정옥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예술기행.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몽환의 리듬, 까미니또 격정 스태프의 보사노바와 탱고의 세계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탱고 영화/탱고 레슨(1997년, 감독/샬리 포터) 보사노바&탱고 음악과 영상/The Girl From Ipanema, Libertango 등 12곡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술/삼바(Samba, 1945년, 아니타 말파티) 등 8점 아르헨티나의 詩/두 편의 영문시(Two English Poems,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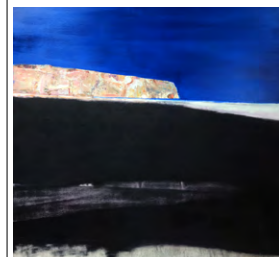
### 이우환과 친구들 IV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쥬비

일 시 | 1월 26일(목)-3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 최성원 초대개인전 詩가 담긴 서정적 풍경

일 시 | 3월 19일(일)-4월 16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울산미술 올해의 작가상, 울산예총 공로상, BIAF 작가대상을 수상하고 BIAF 전시감독, JW ART Gallery 전속작가로 있는 최성원 초대전.



March 2023

## ESG 경영 비전 선포식 개최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월 15일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갖고 환경과 사람, 지역을 아우르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이 되기 위한 'ESG 경영 비전'을 발표했다.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재)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부산시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대표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비전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ESG 경영 현장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축하공연으로 지역의 장에 청년예술인을 초청, ESG 경영의 의미를 다졌다. 이날 발표한 ESG 경영 비전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에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공연장 ▲지역과 상생하는 안전한 공연장 ▲투명한 경영으로 청렴한 공연장 등 3개 추진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과제, 22개 세부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필 대표이사는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과 사람,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부산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2023년 올해 들어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회장 강충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는 한편, 문화나눔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에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5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온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성현도)과는 지난 2월 8일 협약식을 통해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강화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10일에는 지역의 교육기관인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과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인적교류 및 예술경영 분야 제반 사항 교류, 그리고 협의에 의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두 기관의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2023 꿈꾸는 예술학교

###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051-607-3113, 3136)



부산지역 학생들의 예술 체험, 교육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진행하는 <꿈꾸는 예술학교>가 2023년에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만난다.

2020년 부산시교육청 추진의 초등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기로 시작된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는 지난해 공연 3년 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총 120회 공연, 2만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쉽고 친근한 무대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미래 관객이 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2023년에는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레퍼토리를 준비, 신학기를 맞는다.

부산시립합창단 ‘교실 밖 합창여행’은 교과서 수록곡, 오페라와 뮤지컬, 가요, 가곡 등의 다양한 곡들을 합창, 중창, 독창 등의 여러 형태로 노래한다. 올해는 합창단에서 유치원생, 초등저학년을 위해 동물, 생활습관 등과 관련된 동요들을 영상과 함께 구성한 ‘지그재그 음악회’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은 국악 실내악, 국악가요, 판소리, 타악 협주곡 등을 통해 국악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확실히 깨며, 생동감 있는 국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공연

은 클래식 명곡과 애니메이션 OST 등 친근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하모니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2022년 새롭게 마련된 토크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는 오페라에 토크를 더하고, 분장 체험을 접목하여 평소 오페라 공연을 접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오페라의 매력을 알려준다. 토크오페라는 지역 청년 성악가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춰 연주하는 오페라 갈라 무대로 2023년 부산지역 성악가 오디션을 실시, 6월 공연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부산시립극단 ‘미운오리새끼’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재해석한 초등학생용 뮤지컬로 오리 무리 속에 섞인 백조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미운오리새끼’는 2021년 초연되어 매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중, 고등학생을 위해 제작한 ‘소년 B가 사는 집’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의 내면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청소년 연극이다.

그 외에 예술단의 정기/특별 연주회들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생들이 볼만한 레퍼토리는 청소년들의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문을 활짝 연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우리아이음악회’에서는 생상스/동물의 사육제를, 부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에서는 다양한 전래동요 등을 통해 학생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진행되며, 올해의 첫 공연은 4월 7일(금),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합창단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전화 예약을 통해서 접수 가능하다.



# 2023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 모집

## 2023.2.27.(월) - 3.15.(수) 선착순

온라인 접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아카데미 - 수강신청

오프라인 접수·문의    051-607-6000

### 수강신청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상·하반기 학기별(4개월)로 운영됩니다.
2. 한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초급·중급 강좌 중복 수강은 불가합니다.  
(발레, 사물놀이, 클래식기타 과목 해당)
3. 동일 강좌는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속 수강 가능합니다.
4. 청강 및 대리수강, 일일수강 불가합니다.
5. 정원 미달 강의에 한해 중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나, 수강료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6. 강좌별 최소 정원 미달 시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7. 수강 기간 중, 수강생 대상 무료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분야	강의명	기간	일시	회차	장소	인원	수강료
발레(중급)	프리미엄 발레	3. 21. ~ 7. 4.	(화) 10:30~12:1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드로잉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3. 21. ~ 7. 4.	(화) 10:30~12:30	15회차	챔버홀 아트랩	10	240,000
사물놀이(초급)	삼도설장구 '다스름부터 휘모리까지'	3. 21. ~ 7. 4.	(화) 16:00~18:0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사물놀이(중급)	삼도 사물놀이 연주하기	3. 21. ~ 7. 4.	(화) 19:30~21:3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발레(초급)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3. 22. ~ 6. 28.	(수) 10:30~12:1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연극	나의 이야기, 연극이 되다	3. 22. ~ 7. 5.	(수) 13:30~15:3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한국화	고운 색으로 물들이는 나만의 민화	3. 22. ~ 6. 28.	(수) 19:30~21:30	15회차	챔버홀 아트랩	10	240,000
현대무용	춤추는 현대무용	3. 23. ~ 6. 29.	(목) 19:30~21:1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서양화	현대적으로 공간 표현하기	3. 23. ~ 6. 29.	(목) 19:30~21:30	15회차	챔버홀 아트랩	10	240,000
클래식기타(초급)	클래식기타(초급)	3. 31. ~ 7. 14.	(금) 10:30~12:3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클래식기타(중급)	클래식기타(중급)	3. 31. ~ 7. 14.	(금) 14:00~16:00	15회차	중극장 연습실	15	240,000
예술인문강좌(사진학)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프로젝트)	3. 25. ~ 7. 8.	(토) 10:00~12:00	15회차	챔버홀 강의실2	25	240,000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  
부산시립예술단 관객 맞춤 공연

##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희망 기관 모집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3년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접수기간** 2023. 2. 15.(수) ~ 3. 10.(금)  
**공연기간** 2023. 4. 1.(토) ~ 12. 31.(일)  
**공연단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규모** 행사 및 단체 특성에 따른 협의로 진행  
**소요시간** 40분 이내  
**신청가능행사** 부산지역 부산 시민을 위한 행사  
 (복지관 등 문화 필요 계층)  
**접수방법** 전자우편 [bsccityart\\_go@bscc.or.kr](mailto:bsccityart_go@bscc.or.kr)  
 ※접수마감 후 선정 회의를 거쳐 공연 단체, 공연 일정,  
 프로그램 선정  
**참가비** 무료  
 (조명, 음향 등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 경비는 기관 부담)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10~1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주역 모집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출연할 부산 지역의  
열정 넘치는 청년 예술가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공연일시** 2023. 6. 22.(목) ~ 6. 24.(토)  
 평일 오전 10:30, 오후 2:00 / 토요일 오후 4:00  
 ※평일 공연 일정은 예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연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선발인원** 해당 배역에 적합한 인원 5~8명  
**해당배역** 로지나, 피가로, 알마비바, 바르톨로, 바질리오  
**응시자격** ① 공연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성악가  
 ② 부산 출신(타 지역 대학, 해외 대학 졸업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부산 또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활동 증빙 필요)  
**접수기간** 2023. 2. 17.(금) ~ 3. 16.(목) 17:00까지  
**전형일정** 2023. 3. 20.(월) 14:00 부산문화회관 다듬채 1층  
**합격자발표** 2023. 3. 24.(금) 17:00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처** 전자우편 [yrkim@bscc.or.kr](mailto:yrkim@bscc.or.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10~1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



### 두모포왜관 수사록

배길남 지음 / 함향 / 1만 5천원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길남 소설가가 조선시대 부산지역에 있었던 두모포왜관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썼다. 두모포왜관은 조선시대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1607년에 두모포(豆毛浦 : 현 부산 동구청이 있는 자리)에 설치한 상관(商館)이다. 임진왜란 발발로 기존의 왜관들이 폐쇄되었다가, 두모포왜관이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두모포 1곳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역물량을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두모포 포구에 배를 접안하는 여건이 어려워 초량에 왜관을 설치하여 이전했다. 두모포왜관을 구관, 초량왜관을 신관으로 불렀다. 당시 조선에 설치된 왜관은 특별한 땅이었다. 배길남 소설가는 2011년 여름, 부산일보의 '소설로 푼 설화' 시리즈 중 한 편을 쓰면서 두모포왜관을 만났다. 왜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랐다. 왕조실록에서 동래상인 임소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깊어졌다. 왜관과 통하여 은화 7만여냥을 증식했다는 임소는 참형을 앞두고 당당하게 보석을 청했다. 임소는 인조1년에 한성까지 끌려가 공개 참형당했다. 왜관과 그 주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도 작가의 가슴에서 저절로 새어나왔다. 10년간 무르익은 소설이다.



### 그림, 클래식 악기를 그린다

장금 지음 / 북피움 / 1만 9천 800원

초기 피아노 제작자들은 가구 제작자 출신이었다. 피아노는 '럭셔리 가구'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드넓은 거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상상해보면 짐작해볼 수 있다. 터키 군대 군악대가 연주한 팀파니는 유럽 대륙을 혼비백산하게 만들던 '최종병기'였다. 굉음을 내던 군악대의 악기를 오케스트라 악기로 '순한 양'처럼 길들인 사람은 베토벤이었다.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까지 일컬어지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신들린 연주는 '개량된 바이올린 활' 덕분이었다. 기존에 짊고 불룩한 모양이었던 바이올린 활은 19세기에 파가니니의 등장 무렵에 개량되었고, 파가니니는 이 새로운 활로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청중을 휘어잡았다. 클래식 악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음악을 전공하고 연구해 온 저자는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클래식빵>에서 친절한 해설자 '짱언니'로 잘 알려져 있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의 안내로 클래식 악기를 만나보자. 바이올린, 피아노, 플루트, 팀파니, 류트, 하프. 여섯 가지 악기와 함께 우아하고 아름다운 유럽의 문화와 역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 컬러 오브 아트

클로이 애슈비 지음, 김하니 옮김 / 아르카디아 / 3만 3천원

미술 분야 중 특히 회화 작품을 볼 때 관람객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캔버스를 채운 색이다. 화가 역시 어떤 색으로 캔버스를 물들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2023년 '올해의 컬러'는 '비바 마젠타(Viva Magenta)'. 팬데믹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진홍색이다. 색채 전문 회사 팬톤의 올해의 컬러 선정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평범한 사람도 색의 영향을 받는데, 화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화가에게 컬러는 곧 작품이다. 작가이자 예술 저널리스트인 클로이 애슈비가 미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매력적이며 때로는 과감한 색채를 보여준 명화 80점으로 색의 미술사를 소개한다. 선사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 특징을 잘 담은 6~7점의 작품이 선정됐고 안료와 도구, 기법 발전 과정, 색 인식론, 색채 심리학 등의 설명도 이어진다. 책을 펼치면 오른쪽에 명화가, 왼쪽에 해당 작품에 쓰인 색 중에서 작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두어 저자가 구성한 팔레트가 있다. 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팬톤 컬러 코드가 포함된 인포그래픽 팔레트이다. 한 손에 화가의 팔레트를 들고 명화를 보는 기분이 드는 책이다.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 2023. 1-6월

January - June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실내악의 향연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3. 1. 3.(화)-1. 17.(화)  
예술감독 | 김동욱



### All that Chamber music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문화 | 중극장** 2023. 1. 3.(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홍균  
• 비올라 | 최영식, 배은진  
• 첼로 | 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 | 션 케너드 • 클라리넷 | 백동훈



###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  
바클레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퀸텟의 진수

**문화 | 챔버홀** 2023. 1. 4.(수) 7:3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 | 최영식  
• 첼로 | 요나 김 • 피아노 | 션 케너드



###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3. 1. 7.(토) 5:00pm  
전석 10,000원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 실내악 열전

**문화 | 챔버홀** 2023. 1. 10.(화) 7:30pm  
전석 20,000원  
※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



### Rosenstein String Quartet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문화 | 챔버홀** 2023. 1. 12.(목) 7:30pm  
전석 30,000원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르크 헤게만, 황어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머, 홍승아



###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

기(起)-승(承)-전(轉)-실내악(室內樂)

**문화 | 챔버홀** 2023. 1. 14.(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김현오 • 첼로 | 김지영  
• 피아노 | 조민현 • 소프라노 | 양승미  
• 피아노 | 김성주 • 비올라 | 김가영 • 동백유랑단



### 폐막 연주회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심희정

**문화 | 챔버홀** 2023. 1. 17.(화) 7:30pm  
전석 20,000원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피아노 | 심희정



###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29.(일) 4:00pm  
R 70,000원 S 5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마놀로 까닌 • 출연 | 빈 소년 합창단



뮤지컬의 본 고장,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곳!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문화 | 대극장** 2023. 2. 3.(금)-2. 5.(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7:00pm,  
일요일 2:00pm  
R 140,000원 OP 13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 출연 |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유낙원, 김동호, 이주순 외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3. 10.(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 색다른 모미의 공주 이야기

###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문화 | 사랑채** 2023. 3. 16.(목)-4. 27.(목)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출연 | 황자미, 우지현, 박규한, 김현주, 김선정 외 다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3. 29.(수)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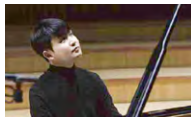
-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시민 | 대극장 2023. 1. 10.(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 최수열(예술감독)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사회 | 김석훈 • 첼로 | 송영훈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박종해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뗌다!!  
**쓰리보이즈 리턴즈**

- 시민 | 소극장 2023.2.10.(금) 7:30pm  
2.11.(토) 3: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공연집단The
- 연출 | 김기영
- 출연 |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낭만 발레의 걸작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 시민 | 대극장 2023. 4. 7.(금) 7:30pm,  
4. 8.(토)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대본 | 배르노이 드 생 조르주, 테오펠 고틀에, 장 코라이
- 안무가 | 장 코라이, 질 페로 • 음악 | 아돌프 아당
- 연출 |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헌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뽀뽀를 찾아라**

-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출연 |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핑컨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

- 시민 | 소극장 2022. 6. 3.(토) 3:00pm  
전석 20,000원
- 연주 | 버스킹 경연에서 선발 된 10개의 밴드  
초청가수(미정)



부산에서 만나보는 세계 어린이 청소년극!  
**세계 어린이·청소년 예술축제  
아시테지 인 부산**

- 시민 | 소극장 2023. 7월 중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야(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 I \*오프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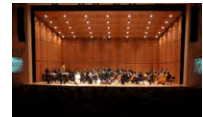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김덕기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줌인II

문화 | 챔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야 류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III

문화 | 챔버홀 2023. 12. 1.(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제606회 정기연주회

###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 멘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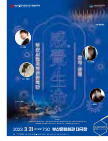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6. 20.(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0.(목)-21.(금) 7:30pm  
전석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12.(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아라비안나이트\_No. 1001야화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12.(금)-22.(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윤(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배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5. 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영



특별공연

###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대극장 2023. 6. 14.(수)-24.(토)  
평일 10:00am, 2:00pm(단체관람),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

### 스타프로젝트 2023-극작가 김문홍전

-안개주의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사자의 편지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시간미정  
• 연출 미정



제76회 정기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솔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무료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제71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9. 5.(화) 7:30pm  
전석 2,000원



###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제162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5. 27.(토) 5:00pm  
전석 2,000원



###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3. 7. 15.(토) 5:00pm  
전석 2,000원



제163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년 1월 3일(화)-1월 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3일 R석 20매, 이외 회차별 20매)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쓰리보이즈 리턴즈

2월 10일(금) 오후 7:30, 2월 11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S석 20매)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2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럽 최고의 스페니시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4월 6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7일(금) 오후 7:30 **종료**  
4월 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S석 40매)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4월 22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4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6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 사랑의 노래

## Program

J. Brahms 'Neue Liebeslieder-Walzer, Op. 65'  
E. Whitacre 'Five Hebrew Love Songs'  
전경숙 편곡 '나의 그리움이여, 나의 망상이여'  
우효원 '꽃밭에서'  
정덕기 '와인과 매너'  
이호준 'Kiss' 등 다수

객원지휘 | 임창은

2023.3.23(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다시 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프레데리크 쇼팽 / 피아노 협주곡 2번  
Fryderyk Franciszek Chopin /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로베르트 슈만 / 교향곡 제1번  
Robert Schumann / Symphony No.1 in B-flat major, Op.38 "Spring"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한빈

2023. **3.28** | 화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 #방문 인증 이벤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  
부산문화회관\_  
다녀왔어요



#

#  
예술의초대\_  
3월호



3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3월호

#

부산시민회관\_  
다녀왔어요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3.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가족 동화뮤지컬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2023. 3. 16(목) - 4. 27(목)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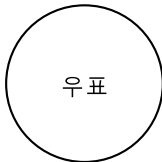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3

MARCH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598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 Last Works II  
An All-Brahms Program

##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부산시립합창단



지휘 이정호



태평소 진윤경



거문고 권은영



사화 송현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感覺·生命

감각·생명

신민속악회 바다

Program

- 국악관현악 "그대, 꽃을 피우다"(손다혜) • 정음사 주제에 의한 거문고 협주곡 "봄의 정원으로 오라"(김영재) • 태평소 시나위 협주곡 "태평"(서용석)
- 메나리토리에 의한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최지혜) • "봄의 계곡"(이창희) • 교향곡 제1번 "별" 中 4악장(이정호)

2023. 3. 31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 Concerto MÁLAGA

콘체르토 말라가

2023. 4. 6<sup>THU</sup>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첼로 홍승아



가야금 김소정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티켓가격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